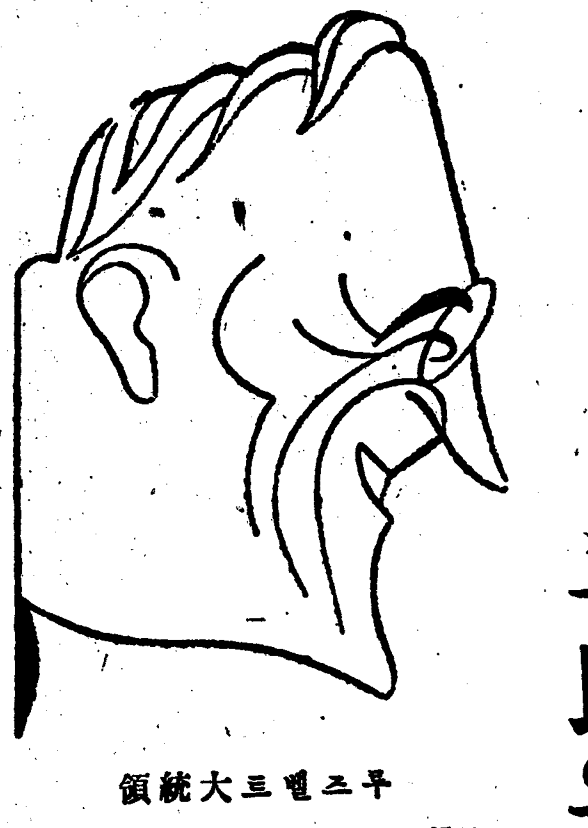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十五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金鶴香油

七十一億餘萬弗로 米國不況退治를決意

國民所得을增進하기爲한進軍이라고 루氏의特別敎書內容



루스벨트大統領

【華府十四日發同盟】루스벨트大統領은 十四日議會에對하야 特別敎書를發送하야 米國의 不況對策으로써 各種公共事業의 實施及信用擴張의 必要를 强調하야 右에對한 議會의 支持를 要請하엿다 大統領이 不況對策에 動員하려고한 資金은 實로總額七十一億一千二百萬弗이라는 尨大한 巨額의 數字에 達하엿다 特別敎書의 要旨는 如左하다

米國의 景氣後退를 打開키 爲하야서는 國民精神의 一致團結이 必要하다 國債의 累增에 鑑하야 이以上의 支出을 增加함에 反對하는 者도잇다 그러나 國民所得의 增加야말로 米國의 債務를 急速히 減少시킬수잇는 基礎이다 그런데 現在의 經濟組織의 圓滑한 運營을 期待하기에는 너무나 不充分하다 그러므로 余는 再次로 此에 國民所得의 增加에 關하야 運營을 開始할 必要를 宣明하는 者이므로 이에 對하야 余는 如左한 諸提案의 實施를 議會에 要請한다

▲來年度追加豫算

一、促進局豫算 十二億五千萬弗 一、農業保險局豫算 一億七千五百萬弗 一、米國靑年局豫算 七千五百萬弗 一、資源活用國豫算 五千萬弗 一、復興金融會社融資豫算 十五億弗 合計 三十億五千萬弗

▲銀行融資餘力을增加키爲하야

一、不活動資金開放 十四億弗 一、聯邦準備加盟銀行準備率引下 七億五千萬弗 合計 二十一億五千萬弗

▲購買力增進을目的으로한各種公共事業費

一、住宅建築事業費 三千萬弗 一、公共事業公債 四億五千萬弗 一、公共道路建設事業費 一億弗 一、治水事業費 三千七百萬弗 一、政府建築事業 二千五百萬弗 合計九億一千二百萬弗 總計 六十一億一千二百萬弗

또 余는 議會가 政府에對하야 十億弗을 限度로한 公共事業公債發行의 權限을 附與할것을 要請한다 그리고 이十億弗을合하야 七十一億一千二百萬弗로써 景氣回復에의 進軍을 開始하려고한다

【華府十四日發同盟】루스벨트大統領은 景氣回復에 關한 特別敎書를 議會에 發送하야 總額七十一億弗을突破하는 尨大한 資金放出의權限을 議會에 求하엿는데 同夜十時半 라디오를通하야 得意의爐邊談話를試하야 全國民에 敎書의主旨를 詳細說明하는同時에 率直히所信을披瀝하야 一般의支持를求하엿다 演說內容은如左하다

政府는 過去數個月에亘하야 經濟界自身이自力으로 後退한景氣를 回復할수잇슬지엇슬지 觀望하여온바 事態는 政府가 束手坐視할수업는 政府가 此際不況退治에 率先進出할이必要하게되엿다 最近各國家는 모두 民主主義의原則으로부터 離脫하야 獨裁主義에 移行하고잇는데 如斯한狀態는 모두 此等國家가資金의 指導者를가지지못하고 失業問題 財界不安 其他各種困難을 打開할수업는 政府의 無力함에 國民이 絶望한 結果에 不外하다 國家의自由를 維持할수잇는 確實한基礎는 國內統治에 充分한 支配力을가진强力한 內閣을 組織함에不外하다 그러타면 米國은 어떠나 我等은 富한國民이오 따러 我等의 自由를代償으로하야 國內의運營의繁榮을 犧牲하지안코서 充分한 景氣回復을 實現할수잇다 我等은 物資的繁榮回復을 要求하고잇지는안코 米國이 가장 必要한것은 全國民을 一丸으로한 統一된國民意思의結成이다

蔣介石、宋子文 長沙爆擊時重傷

其他國府要人도多數爆死 其後消息은全然不明

【上海十五日發同盟】十日我海軍航空隊의 長沙爆擊으로 蔣介石、宋子文의 生死에 關하야는 그後當地某方面에 達한 情報에依하면 蔣介石 宋子文은 當時長沙의 中央軍政指揮所에 잇섯는데 我爆擊때문에 蔣介石은 兩足에 또宋子文은腹部에 各各重傷을바덧고 其他要人은 爆死된者가 多數에達하엿다 負傷한 蔣介石 宋子文은 應急手當을한後 同夜嚴重警戒裡에 何處인가 옴기여갓다고 傳한다 그리고 不意의爆擊을 맛게된 長沙는 飛行場에잇든 支那飛行機도 飛上할사이도업시 擊破되엿다고 傳한다

【南京十五日發同盟】當地支那側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去十日 我海軍機의 長沙爆擊에 依하야 蔣介石은 발에 重傷을입고 宋子文도 팔을 負傷하엿다고하는데 그後의狀況은 全혀不明하다 (寫眞은 蔣介石과 宋子文)

英伊協定、明日正式調印키로決定

에國、地中海問題等九項目包含 英首相도下院서言明

【東京電話同盟】英米佛三國海軍當局은 爲先一萬六千噸乃至一萬八千噸級 巡洋艦 ... 專門家會議는 이미第一回會議를열엇고 主力艦超過噸數에對하야 具體的討議를開始한바 右制限協議의對象으로된 問題는 主力艦이바 最近米國方面에서는 巡洋艦의制限에關하야도 極秘裡에考慮하고잇는模樣으로 或은三國專門家會議에 미리問題로서 巡洋艦問題를提出치나 안는가고보인다 卽米國政府의 意圖하는바는 어떠問題에對하야는 그責任을 帝國政府에 轉嫁하려하며 通過UP電報라하야 帝國政府가 超弩級巡洋艦을中心으로한 히트·앤드·런 艦隊의計劃을 進行하고잇다는宣傳을하고잇는바 이것은分明히米國政府의 大建艦에對한 伏線으로서 主力艦에잇서서는 四萬五千噸級以上의것을 建造하려하고 十二吋砲搭載卽主力艦과 巡洋艦의中間인 超弩級巡洋艦을 建造하려는 意圖가 潛在해잇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 一九三六年의 倫敦條約에依하면 一萬七千五百噸以下의 主力艦은 絶對로建造할수업스며 또巡洋艦의制限噸數는 八千噸乃至一萬噸級으로 備砲도 八吋를超過할수가 업게되엿스므로 如斯한米國의主張을容認하는 경우에는 必然的으로右條約中의 巡洋艦制限規定을 廢棄치안흘수업게되는것으로 最近에잇서서 米國政府의 建艦熱은 必然的으로主力艦制限噸數引上과同時에 巡洋艦噸數制限을撤廢하기에이르지나안는가고 觀測된다 (寫眞은 무首相과英首相)

米、巡洋艦에關해도 超弩級艦을考慮

海軍專門家會議에提出?

【羅馬十四日下院同盟特派員發】뭇솔리니首相은 十四日 午前十時버내차宮에 퍼-스英大使를招致、차노外相도 列席하야 兩國間에成立되게될英伊新協定의共最을行하고그結果同協定은 도디어十六日正午伊太利外務省의『기지』宮에서 調印하기로 正式決定하엿다 新協定은 議定書의 形式을取하야 一九三八年四月十六日附 羅馬議定書라고 稱하는데 그內容은 에디오피아合倂承認外에 地中海、팔레스타인、紅海、수에즈、英領리비아等의 各種目의 問題에亘하야 九項目으로 될터이다 英政府가 同時에發表할터로 차노外相及 퍼-스英大使는 連名으로 英伊兩國의 好關係增進을强調한 共同콤뮤니케를 發表할豫定이다

【倫敦十四日發同盟】英伊協定이 來十六日調印케될것은 十四日午前쳄벌린首相의 下院에서의 聲明으로 도디어確實하게된바 倫敦政界에서는 쳄벌린首相이 協定調印에앞서 如斯한 聲明을한것은 結局伊太利가『英伊協定은伊太利義勇軍이 西班牙로부터 撤收後 效力을 發生함』이라는條件을 承諾한것을 말하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 十六日에行할 調印은 假調印에不過하며 正式調印은 後日에行할것이라고 觀測하는便도잇다

武鄕占領

【太原十五日發同盟】欽松部隊는 十三日午前一時半 沁縣東北方武鄕을占領하엿다 武鄕은 沁縣과 함게 八路軍指揮의敗殘共産軍第八路軍第八集團의 策動의 根據地로 이外第十八集團에 屬한 第百十五第百二十九兩師가 蟠居하여잇든바 武鄕沁縣을 中心으로한 敵兵力을 大大的掃蕩하자 主力은 三百의 自衛隊를 남기고 山西方面으로 遁走하야 十三日 欽松部隊는 이를포위擊滅을 開始하엿다

英政府、米國에

爆擊機五百臺註文

【倫敦十四日發同盟】再軍備에 邁進하는 英國政府는 最近米國政府에 對하야 爆擊機五百臺의 註文을 發하고 目下購入契約에 對하야 米國과 協議中이라고 傳하는바 如斯한 大量的國際武器購入約定은 지금까지 어느나라에서도 일직이 볼수업든空前의 大註文으로 各方面의 注目을 끌고잇다 뉴-스·크로니클紙 紐育通信에 依하면 英國은 于先金額五百萬磅의 注文을 發하고 繼續하야 三百萬磅의 註文을 發할 七十萬磅의 註文을 發할 意向인바 이것으로 將來 軍用機의 供給權을 確保하려는意向이라고하며 다시나아가 一旦有事之時에는 米國中立法의 適用을 免키爲하야 米國航空機製造會社의 分工場을 加奈陀에 設立할것을 提案치나 안는가하는 觀測이잇다 그리고 英國이 米國으로부터 購入하는 飛行機는 엔진을 裝備한것인지 或은 機體만을 購入하야 英國에서 機關을 裝備할른지 現在로는 不明하다고한다

佛伊兩國間에 新通商協定成立

【羅馬十四日發同盟】佛伊協定成立에 뒤이어 佛伊接近의 氣運이傳하는此際 차노外相은過般來佛伊經濟關係의 調整策에 對하야 駐伊佛代理大使 브론델氏와 協議를 거듭하든바 交涉이 順調로 進捗되어 十四日午後차노外相 브론델代理大使의間에 佛伊貿易淸算協定要綱에關한 新通商協定이 調印되엿다 佛伊兩國은 右通商協定成立으로 今後通商取引의 全般에亘하야 舊著自由制度를 復活하게되엿다

孫科英首相訪問

【倫敦十二日發同盟】倫敦滯在中의 國民政府特使 孫科는 十二日 支那大使館에 잇서서의 記者團招待를 맛치고 夕刻 郭泰祺大使를 帶同 下院首相室에 쳄벌린首相을 訪問하고 長時間에亘하야 會談을 하엿다 席上孫科는 日支紛爭에 잇서서의 支那의 立場을 說明하고 特히財政上의 援助를 要望하야 對支借款의 可能性에 對하야 首相의 意向을 打診하지 안헛는가고 보인다

兩米平和維持 루大統領이强調

【華盛頓十四日發同盟】루스벨트大統領은 汎米週間 終了에際하야 米洲諸國民에 對하야 十四日正午라디오를通해서 放送演說을하야 汎米大陸의 平和維持를 强調하엿다 米洲內二十一共和國의 平和는 西半球外로부터의 攻擊에依해서 毁損되는일이 잇서서는 아니된다 또한 紛爭에依해서 毁損되는일이잇서서는 안된다 米洲以外의 世界에서는 悲劇을 演出하고잇슴에 反하야 오직米洲內에서는 正義의支配力이 미쳐 不斷한다는것을 全米外에 闡示할수잇도록 되여야하겟다

石田部隊敵攻擊開始

【太原十五日發同盟】大谷南方의 敵陣을 마치내 陷落한 石田部隊는 十三日朝 國境에 또지카를가진 東關城舖及 西關城附近 一帶의 高地點의 攻擊을 開始하엿다

支那當局 外人飛行士를馘首

【東京電話同盟】漢城支那空軍은 現在三十名의 外人飛行士를採用하고잇스나 連戰連敗하는敗戰과 月給支給不能으로 이들飛行士를最近全部活動시킬方策이 업게되여 窮迫한支那當局은 白人飛行士十十名을 不得已解雇하기에이르럿다 解雇된飛行士는 米國系三國人으로 아라스카人飛行士마이로、보르렐以下七名中 三名은目下香港에잇서 近近歸米할터이다

國內安全기다려

佛外交關係調整에出馬

【巴里十四日發同盟】財政全權法案의 議會通過에依하야 國內安定을確保한 佛國政府는 마참내 外交關係의 調整에 進出하기로되여 佛國外交의重點은 첫재英佛提携及 佛伊親善에두고 이點에 조처서 獨墺合邦後의 新事態에 對處하기로될 模樣으로 英佛關係의 緊密工作으로서는 四月下旬 달라디에首相은 보네外相과 더부러 倫敦을訪問、쳄벌린首相과 親히會談하야 兩國間의政治的軍事的連繫를 益益强化하려는 模樣이다 一方쳄벌린首相도 佛國國內의 不安이解決되는대로英佛會談을 可及的速히 開催하려는意向을가지고잇는模樣이바 右會談에依하야 英國도 對佛親善關係의確立을希望하는 意向이라고한다

그리고 佛國의對伊親善工作으로서는 佛伊通商協定의 交涉開始가 豫定되고잇스나 佛國으로서는 兩國國交調整을 意圖하야 正式大使를派遣할豫定이갓다 이경우 大使任狀에도 伊太利國王兼에디오피아皇帝라고 記入하야 이미駐伊大使의 下馬評도 大端히云謂되고잇다 (寫眞은 달라디에首相)

더 보드라도 假令 理事會가 審議에附한다하더라도 積極的成案은期待할수업다고 觀測된다

聯盟理事會又復 日支紛爭問題審議?

【쥬네브十四日發同盟】百一回聯盟理事會는 五月一日 쥬네브市 에서開會되는데 伊에倂合非承認 決議撤回問題外에理事會가 再三失敗하엿슴에 不拘하고日支紛爭問題를 審議할는지 안할는지注目되는데 理事會는 日支紛爭問題가 議題에잇는以上 勿論實際的으로 그審議를 行할것이나 去二月二日第百回聯盟理事會에서도 結局支那에對한 道義的援助를 要望하고 그具體的援助策에 對하야는 各聯盟國의 審議에依하기로하고 局面을糊塗한 事實로 부

八面鋒

◇ 官吏制度、貴院改革問題等으로福府、貴族院에 反對聲。

◇ 先年福府、貴族院改革案은 鬼門에 드리지 말라는 福府側의 警告가잇섯거니와。

◇ 自己勢力을 減縮시키자는 政府案에 貴院、福府가 唯唯諾諾키는 期待難。

◇ 學年初로 敎員의 移動이 甚한데 게다가 敎員이 大不足하야 敎授上 大支障이라고。

◇ 敎師를 넘우 頻繁히 移動시킴도 不可。

◇ 況 敎員不足으로 二部制等을 實施함은、더問題。

◇ 今日부터 都市對抗蹴球戰。

◇ 京城勝乎。平壤勝乎。또는咸興勝乎? 正히 興味의中心。

◇ 花發多風雨라 비바람이、곱고 세니 꼿필날도 멀지 안흔가보내。

人事·集會

◆下村海氏(總督府保安課長)滿東中十五日午後一時三十五分京城驛着赴任

廬溝戰捷宣傳文 靑年記者學會創立

【上海十四日發同盟】漢口로부터의 情報에依하면 敗戰에依한國民意氣의 沮喪을 防止키爲하야 各種宣傳에 熱中하고잇는國民政府의 이니시어티브로今回漢口에 全國新聞記者學會의 結成되어 最近 創立大會를 開催하엿다 同會는 北支、上海等地로부터 避難하여온 失業靑年記者를 糾合하야 各支那戰線에 記者를派遣하야 民政府의 抗戰戰捷記事를 全國에 撒布하려는것이다

オリヂンス、ヂーゼル機關
大阪三國鐵工所製
5馬力=10馬力
無絶障故
高効率熱ク
ハ減激ノ料消費燃料
他機ノ追從ヲ許サズ
元賣販一手朝鮮
京城漢江通參
弘中商工株式會社
代理店 平壤南門通貳 五六商會 大邱元町壹 忽那商店 釜山大倉町貳 弘中商會

謹告
四月十六日부터 左와如히價格을改訂하엿사오며倍前愛用하여주시기를懇願하나이다
星印二穴煉炭 一二〇〇個 京龍舊市內御屆 金二拾五圓參拾錢
星印マセック煉炭 十四叺 正味七〇キロ入 金貳拾五圓貳拾錢
マセック型京城ピッチ煉炭 同 金貳拾五圓也
三井物産專屬
製造元 合名會社 京城ピッチ煉炭工場 京城府堂山町電話永登浦貳參七番
一手販賣店 西田石炭商店 京城府古市町四一 電本局三二〇八·一九·一四二九

官製煉炭値段
四月十六日ヨリ左記ノ通リ改訂ニ付不相渝御愛用ノ程願上候
二穴煉炭 一、二〇〇個 京龍舊市內御屆 金二五圓七〇錢也
三穴煉炭 同上 金二三圓一〇錢也
マセック煉炭 十四叺ニ付(一叺正味七〇瓩入) 同上 金二五圓二〇錢也
昭和十三年四月十五日
海軍燃料廠鑛業部製造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

桐印煉炭値段廣告
四月十六日ヨリ左記ノ通改定致候ニ付不相變御愛用ノ程願上候
角型 二ツ穴 三ツ穴 煉炭 一、二〇〇個ニ付 京龍舊市內御屆 金二十四圓二十錢也
マセック煉炭 同上 十四叺ニ付(一叺正味七〇瓩入) 金二十五圓也
昭和十三年四月十六日
朝鮮煉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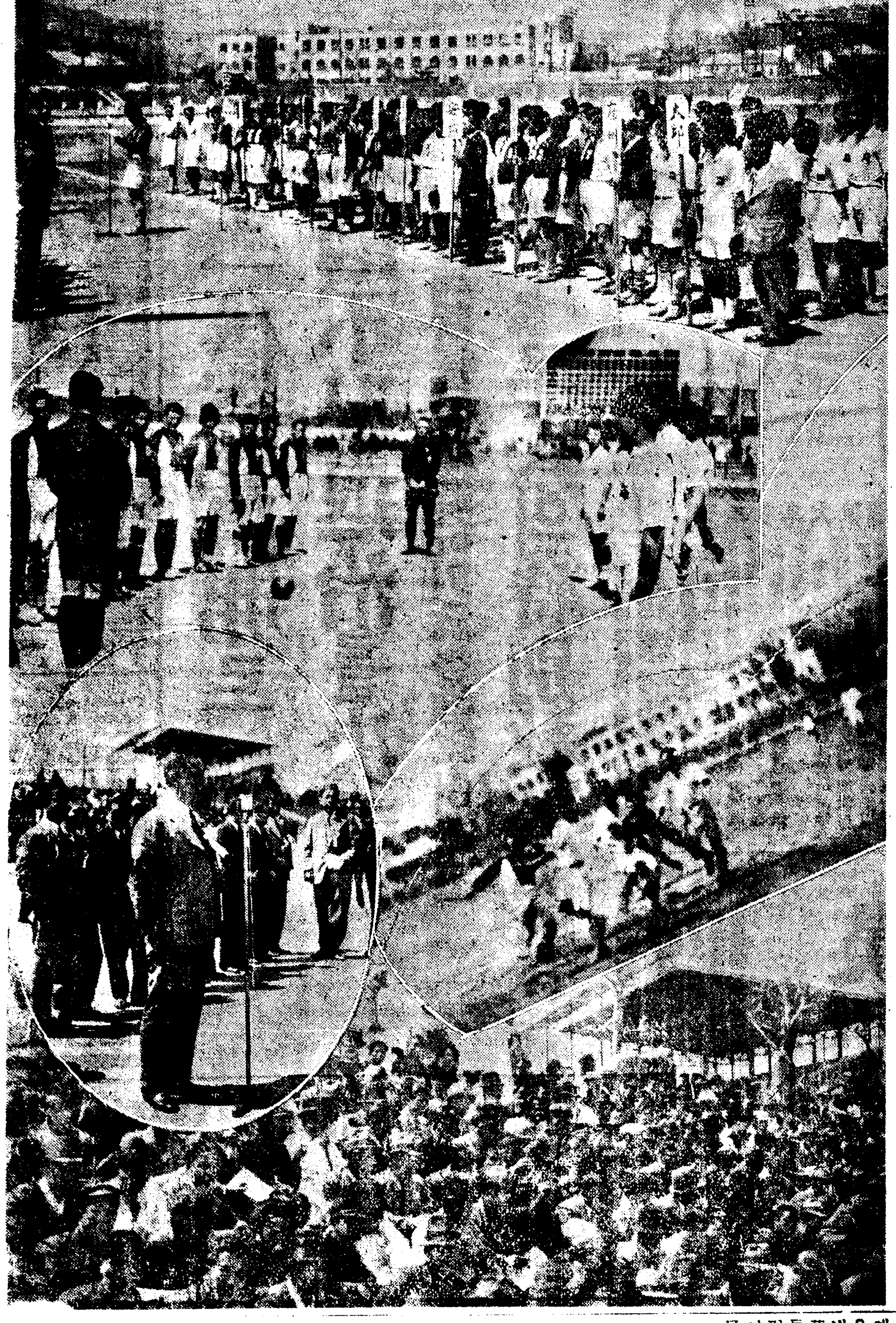
京城府仁寺町一七八番地
內科 小兒科 姜內科醫院
醫學博士 姜聲郁
電話光二六六五番

東 趙俊鎬取引店 期米
仁川·海岸町
電話 五六一一圓 六一九圓
今年米穀年度의 持越高는 千萬石突破로 推算될에도不拘하고 米市勢가意外의强調를繼續함은 事變下市勢의特色
이고 그만큼 今年의 米穀事情은 例年에 볼수업는 複雜性을 가지고잇습니다。減穀期에 臨迫하고 天候의 支配를 밧는 所謂
天災期에는 드듸어 米市勢야말로 去益波瀾이 만코 興味가 增大될것이니 新規出動에는 絶好의 機會가 될것입니다。(營業案內進呈)

都市對抗蹴球大會今日開幕

靑春朝鮮의極彩圖
十二都市代表歷史的對陣
麗春四月祝福바든快晴日
城東原頭興奮의奔流

약진 스포-츠 조선의 획기적인 쾌거전의 전개, 전조선도시대항축구대회(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의 첫모임은 본사주최와 조선축구협회후원으로 금년째-즌 벽두에 오늘 호화로운 막을 열엇다 기념할 이날의 사월십오일! 전날의 폭풍우는 씻은듯이 개이고 서북풍은 약간불엇스나 양춘의 볏은따뜻하야 절호의 날세이다 대회장인 경성운동장은 계림팔도의여섯개인 우리의 용사십일개단체 백팔십여명을 마지하야 대회의 인기를 전조선에 부른다 이날장안의 인기는 또한 전에업시 노픈바잇서 정오의입장식 정각전부터 모이는 관중은 "스텐드"에 가득몰어차 개전전 삼사천을헤이게되는 성황이다 실로향토적명예의 성전은 아프로 면사일 조선의 성원과 갈채로 시종될것이다



壯嚴한入場式卽後
劈頭 大邱·鎭南浦 交戰
激戰後鎭南浦軍初勝

입장식은 정각보다 잠간느저서 령시십오분에열리엇다 「오니풀」일은양도 눈부시 경성군을 선두로 푸랑카의대소리에 보무를 마추어 운동장서남구로 들어오니 멀리 북한산을 배경으로 들어선 일기당천의 우리건아에게보내는 박수는 장내에넘친다 장내중앙에 정렬하자 본사운동계주임 고봉오(高鳳梧)씨의 사회로 막을열어 대회회장 본사주필 리훈구(李勳求)씨로부터 조선의 스포-츠를위하야 각지방의 명예를지고나온 제군은 끗까지 당당히 싸와 대회의 뜻잇는 열매를맺기를바란다고 간단하나 힘잇는말로 개회사를 한다음 국가「기미가요」의 제창리에 선수와관중일동이 정숙히기립하야 국기게양을하고황국신민의 서사(皇國臣民誓詞)가 잇고 다음에 선수일동을 대표하야 청진군(淸津軍)주장장길석(張吉錫)으로부터 우리들은 조선일보주최제일회전조선 도시대항축구대회에참가케됨을 광영으로 생각하옵고 본대회의제규정을 준수하고 씩씩하게 선서가잇슨후 어서 심판부를대표하야 조선축구협회심판부 현정주(玄正柱)씨가 간단히 선수일동에게 「스포-츠맨쉽」을 존중하야 끗까지아름답게싸우기를 바란다는주의를주고 식을끗내이고 잠간쉬어 순서대로 한시이십분 령남의대구군(大邱軍)과 관서의 진남포(鎭南浦)군이 대진하야 량군의 격전은 마침내 전개되니 장내에는 환성의 용소슴이 끄칠줄을 모르고 뒤를이어 일어낫다 어려케게임이 량군의기술백중으로 엣싸이트하게 진행되어가는중 이때주세를 리용하야 동십팔분에 대구는록세를리용하야 한점을 빼아서이대일로 진남포군을 유리하고 계속하야십칠분에 대구군다시교묘하게 진남포군의 수비진을 뚫고들어가 뚫접하니 이로써이대이의 동점으로 이량의 경전은 점점흥미를 도두어 승패를예상키 어려워스는데 골라개를 련속하야맞앗긴 진남포군측에서는 이에역습을 감행하야 종공구분에 골한점을너어 결국삼대이로써 승리는 진남포군의 머리우에올라가게되엿다

◇第一回戰

鎭南浦3 大邱2【前2:0、後1:2】

【第一次戰】 西南의兩雄…鎭南浦對大邱戰은 同日午後一時十六分부터 片茂英(主審)玄正柱、黃正河(線審)三氏審判下에 大邱軍킥어프로 開戰된바 別項戰績과가티 鎭南浦軍이 三對二로 快捷하야 第二回戰에 드러가서 光州軍과 對戰케되엿다

◇前半 께임始作後二分自由蹴을 利用한 大邱는 골前에 肉迫追擊거듭하엿스나 FB線의 善防으로 無效 ▲五分에 鎭南浦隅蹴으로 어든골킥도 GK의好守로못낫다 ▲大邱逆襲의 長蹴도 노-골 ▲十分鎭南浦CF車君의「페널티킥」골포스트右下隅에 [...] B線의 [...] ▲二十分 鎭南浦「헤딩볼」로 大邱의 문넘어에 떠러까지 [...] W의 [...] 絶好의찬스를 노치고 ▲二十分大邱軍來十米가량되는 [...] FB線의 守備로 물러섯고 ▲二十一分 鎭南浦巧妙한「고쿠리볼」前送패스로 大邱의 골에-리아까지 肉迫하야 골前混戰을 演出하엿스나 CF의골포스트左側을 시치는 골아웃으로 好機를노치고 ▲三十一分鎭南浦鳳勞를 利用하여 一擧골까지나아갓스나 大邱의 FB線의 [...] 鎭南浦의 CF 車君의 아론코킥으로 一點을 加하야 二點을리-드 ▲二點을리-드한 大邱軍의 FW線은 長蹴으로 鎭南軍의陣地에 攻迫하엿스나 鎭南浦의 HB線의파인 게쥐로도-골로 前半戰을마치엇다 ◇後半戰에드러가 大邱軍鳳勞를利하야 FW線의 總攻擊으로二點을 挽回하야 二對二로 同點되여 兩軍은서로 得點에 全力을다하야 一進一退로 게임이 進行되드니 鎭南浦軍의 最後攻擊으로 幸運의二點을어더 結局三對二로 鎭南浦軍이 勝利하엿다 大邱軍은 이번에 中央舞臺에처음으로 登場하엿스나 所期以上의 實力을 發揮하야 이날群衆으로하여금 讚歎을 바덧다 (後半戰經過는 朝刊에 詳細發表하겟습니다)

【大邱】 【鎭南浦】

G	R	L	R	C	L	R	R	C	L	L
K	F	F	H	H	H	W	I	F	I	W

前	7	2	2	0
後	3	0	1	0
計	10	2	3	0
前	1	3	1	1
後	3	1	2	0
計	4	4	3	1

雲集하는觀衆!
午後三時에는平壤、咸興對戰
(午後二時半頃)

관중은 오후에들어가 더욱구름가티 모혀들어 근래에보기드문성황을 이루고잇는데 오후세시부터는 관서의평양군과 함남의함흥군이 격전을하게되어 장내는 이량웅가에 전개될 호화상박의백렬전을압두고 흥분과긴장의소용돌이속에 잠겨잇다

잠자든窃盜
巡察警官이逮捕

십오일오전오시경에 시내룡산서원이 순시중 공덕정(孔德町)일백칠십오번지 쌍룡대(雙龍台)건축장에 다다랏슬때에 사십세가량된 조선인남자가 그곳에서 잠을자고잇스므로 불심심문을 하엿든바 이사나이는 그대로 도망하야버리므로 추적하야 체포하고 취조한결과 그는 시내원남정(苑南町)에사는 전과칠범의 리룡찬(李龍賛)(四一)으로 지난이월구일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에서 오년간의 복역을하고 출옥한이래 지난삼월이십일일 시내 신당정(新堂町)장병기(張丙基)의방에 침입하야 의류가구등속 시가이백여원가량을 훔친것을 자백하엿다는데 그외에도 여죄가 상당히만흘것으로보이며 목하 엄중히취조중이다

遭難漁船續出!
迎日灣에서卄二隻行方不明
九龍浦에선六名沒死

暴風禍

십사일밤경상북도영일군지행면영일만에 출어중이든여루지잡어 어선삼십이척이 강렬한 폭풍으로인하야 행방불명이되엿슨바십오일아츰에 전기삼십이척중십척은 구룡포(九龍浦)와 감포항(甘浦港)에피난한사실이 판명되엿스나 나머지 이십이척은 아직까지도 행방불명중에 잇서서 승조원들의안부가 자못염려된다

그리고 또영일군 대진리(大津里) 림진영(林鎭英)의 소유어선(승조원륙명)은 십오일아츰구룡포에 피난하야 가다가 역시 강렬한 폭풍으로인하야 전복되어서 승조원전부가 몰사한모양이다 또경주군감포항 근해에서 출어중이든십구톤짜리어선 한척도 역시폭풍으로인하야 좌초(坐礁)되엿다

【大邱支局電話】 십사일오후부터 경북(慶北)도내에 풍속십오「미돌」이나되는 폭풍이일어 동해안에 피해가상당히 만흔모양인데 십오일당지경찰부에온 정보에의하면 영일군감포(迎日郡甘浦)에서는 정박중의 기선한척이 전복되고 또영일군내에잇는 거선도 구룡포(九龍浦)에서 전복되어 승무원륙명은 행방불명이되엿다 그외에 십사일에 출어한어선 이십일척의 승무원백명은 구룡포로부터 약이십리바개서 피란중이나 풍파가 심하기때문에 구원의 신호를밧고도 경비선도 못보내고 다만사후에서그참상을바라다볼뿐이다 그리고피해이아즉도세기때문에 경비선도무력하엿다

寫眞說明 상으로부터 십이도시대표팀의입장식、최초로대전하는 진남포대구양군、회장의식사와양군의 격전장면、스탠드를채운 대관중의일부

二重苦의籠中女
鐵道에自殺未遂
蹇脚에酌婦身勢를悲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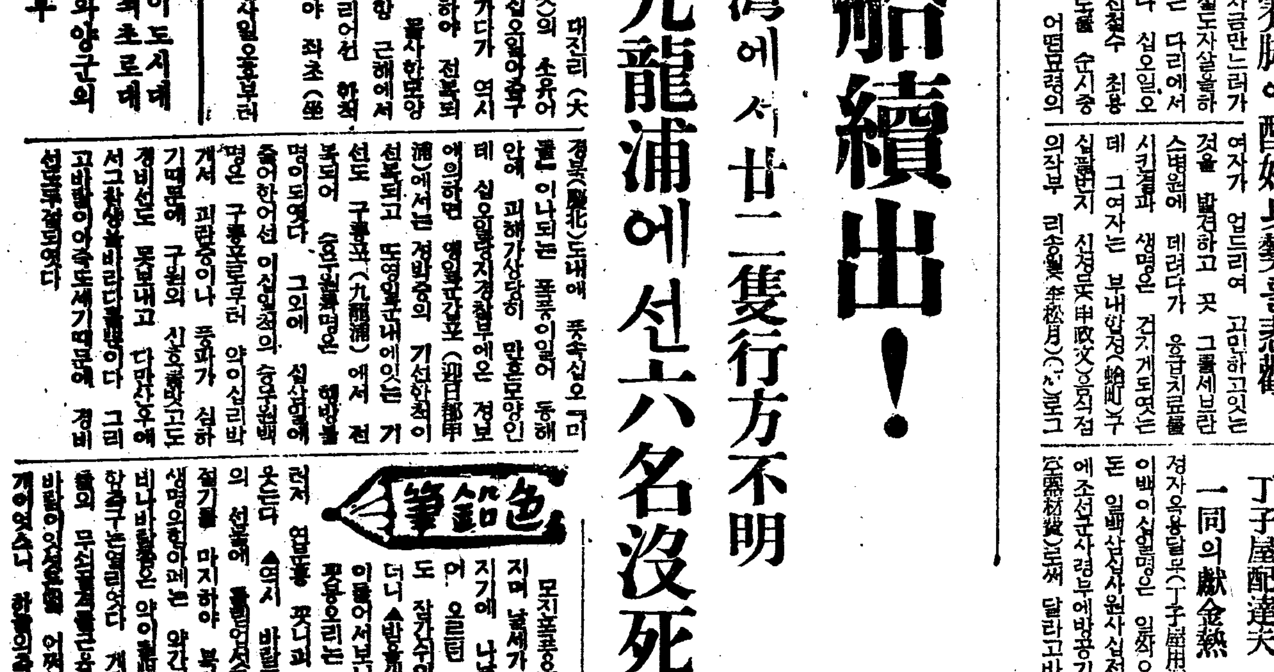
불구자인데다 전차금만는러가는것을 비관하고 철도자살을하려고 세길이나 넘는 다리에서 뛰여내린 작부가잇다 십오일오전세시반쯤 경성역전철수 최용운(崔用云)씨가 선로를 순시중 영천교아래선로우에 어떤묘령의 녀자가 업드리여 고민하고잇는것을 발견하고 곳 그를세브란스병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 시킨결과 생명은 건지게되엿는데 그여자는 부내합정(蛤町)누십륙번지 신정옥(申政玉)의작접의작부 리송월(李松月)(十九)로그는 외이다리하나가 부자유하야 작부생활에 만흔고통을밧고잇는중에 전차금은 점점늘어가는것을비관하고 기차에 갈려죽을목적으로 영천교다리우로부터 철도선로우에 뛰어내린것이라한다

丁子屋配達夫
一同의獻金熱

부내장곡천정(長谷川町) 정자옥용달부(丁子屋用達部)부원 이백이십일명은 일좌으로 모은돈 일백삼십사원사십전을십사일에조선군사령부에방공기재비(防空器材費)로써 달라고바첫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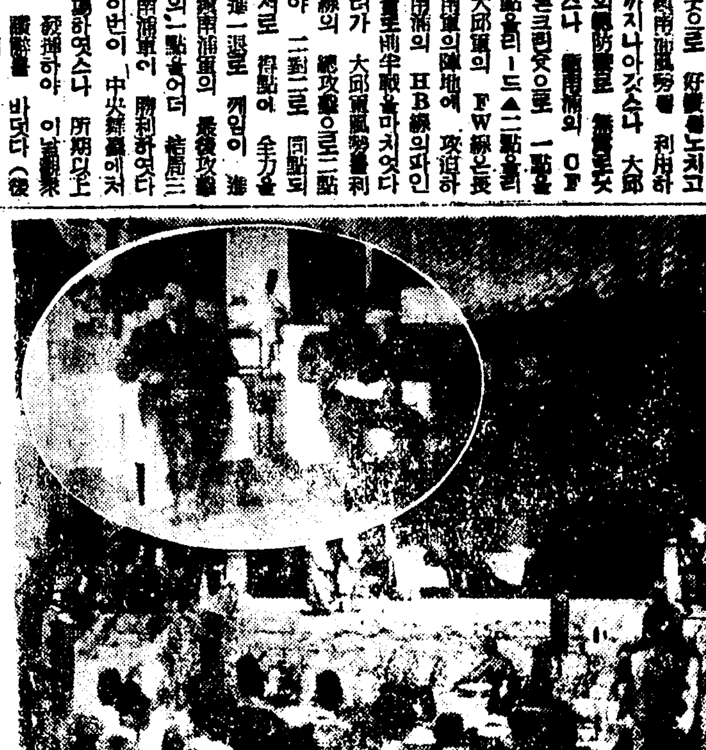
色鉛筆

모진폭풍우가 쏘다지며 날세가 차갑하야지기에 나붓히 봄을어 올르던 꽃봉오리도 잠기우어는가 해더니 ◆밤동새이고 날이붉어서보니 웬걸 벗꽃봉오리는 방싯방실 려저 엽흥 핏니과 아릿답게 웃는다 ◆여시 바람도 비도 봄의 선물에 흥이업서다 제때의 절기를 마지하야 복바치오르는 생명의힘이매는 약간의 거츨은 비나바람은 악이흘뿐 ◆도시대항축구는열리엿다 계림팔도건아들의 무쇠같은체로 근육이며 비나 바람이잇설말 어찌하랴 날이 개이엿스니 한층의호양



新設町에도强盜
元町强盜생긴지不過半日에
今晚典當舖에出現·55圓奪去

십사일 시내 원정(元町)에 백주에 강도사건이잇서 소란 용산서에서는 긴장하여 경계중 이날밤에 새이기전 바람어 몸시부는 십오일오전두시경 시내 신설정(新設町)에복면한 단도강도가 또나타낫다 이날밤 신설정 백삼십칠번지 주인 리태신(李泰信)(四○)의 전당포 신흥옥(新興屋)에서는 주인은 안방에 들어가 자고 사무원 김덕근(金德根)(二○)만이 전당포사무실에서 자고잇섯는데 새벽두시경 누가 깨우는사람이잇서서 잠을깨어보니 눈아페 회중전등을비치우며 어 『이놈 꿈쩍마라! 금고가 어데잇니?』하고 소래를 질르기에 정신을 채리고보니 한사십이나 되엿슴직한자가 검은보재기로 얼굴을 가리우고 한손에는 단도를들고 겻에서 감더리엿는데 김덕근은 어쩔줄을모르고 금고잇는곳을가르처주엇더니 그자는 옷방에잇는 손금고에서 오십오원을 꺼내가지고 가려할때 안방에서 주인이 그런줄도 모르고 나와부어나고 못는데 그는다시 칼을겨누고『머리고덜벗다바란』고소래를지르고 가는길에 칼은 버리고다러낫다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사건이잇슨것을 겨우아침 여덟시에야 보고를밧고 때가느진것을 한탄하면서 범인수사에 대분망중이다



春季文廟釋奠祭
經學院、十五日에執行

문묘춘기석전제(文廟春季釋奠祭)는 십오일오전열시부터 명륜당(明倫堂)에서 거행되엿다 경학원(經學院)에서 유림다수 참례하야 대제(大祭) 정무총감이하 관원다수 참례하야 대성전(大成殿)에서 고식을 진행되어 최후로 (?)남북、대야총감의헌폐가잇슨다음 식을마치고 계속하야명륜당에서 경학원 사성 (?)씨의 강연이잇섯다 (사진은 춘기석전제의 광경과 헌폐하는 대야정무총감)

天氣豫報

槪況 七一〇耗의高氣壓은 今朝日本海北部에잇고 低氣壓은 今朝日本南部를 東北東으로 進行中이다 어제밤에全日本은 强風圈에서벗어잇다 朝鮮南部는 天氣도回復되고風勢도 弱해젓다 朝鮮中部로부터 西日本에 이르러 黃沙가 날리고잇다 바람은 今夜에이르러 漸漸 쯧치고 天氣는 이어서 良好하다

豫報 今夜는 西風이 불고 개인다 明日은 西風 晴一時雲

昨日最高 二二度四
同 最低 五度一
今朝最低 六度三
今日正午 十一度一

各地天候 新義州晴 元山晴 仁川晴 江陵晴 京城晴 全州黃沙 木浦黃沙 釜山黃沙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商況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六時三十分 趣味講演 姜在鎬 ▲七時三〇分 雅樂 李王職雅樂部員 ▲八時(東)管絃樂 ▲八時三〇分 (小)라디오小說 李孝石 ▲九時 演 李載坤

第一放送 ▲六時二五分 講演 ▲七時三〇分(東)歌謠 ▲八時(東)管絃樂 ▲九時 時事解說

精力强進劑 參茸トニク 藥價 五圓 二圓八十錢

精力減退의人! 早老衰弱의人! 에게參茸トニク는唯一한蘇活劑로서定評이잇습니다 本劑는聯合處方劑인故로身體內部로부터精力을增强시키며精力減退、神經衰弱、病後衰弱、肺結核、貧血症、早老等等으로悲觀하는人에게顯著한强精効果가有한것은實驗에依하야明白합니다 (全鮮各地有名藥房及百貨店書籍部에서販賣함)

無代進呈 見本竝ニ說明書

製造發賣元 京城府鍾路三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賣捌元 京城本町四丁目 木村藥房
代理店 東京 大木合名會社 大阪 高橋盛大堂

美胚純 效能 滋養强壯 胎兒發育 婦人病 便秘 脚氣 增血 五百瓦 二圓

YSB YUASA ユアサ 乾電池ランプ

鑛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藥品 名藥賣藥 都賣散賣
山崎仁壽堂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文又停 電光化門(二)一五六八番 振替京城八〇八番

歐米各國世界的特効藥完備 米國生物學醫學士 韓箕道內科醫院 京城鍾路パコダ公園正門東側隣 電話光化門③一八七八番

警察官講義合部全書 朝鮮及滿洲警察官志願者는本會의講義全書를了해依하야絶對合格 非常時立身出世 京城府杉町八二番地 鮮滿警察學會

이內容을滿天下에告함 東洋唯一 觀相師 新運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姜南月先生)

姜南月은 과연 어떠한才士이나 그는 그의빗나는 두눈이 사람을 대하는즉시 과거 현재 미래를 선듯 판단하는 朝鮮이나은 天才觀相家이다 하루밧비 선생의 지도와 교수를 맛고 開運成功과 행복을 圖謀하라 金錢、米豆의成功如何、其他訴訟、結婚、夫婦、職業、每年月運、人事問題等에永遠한責任으로 친절辭謝 ▲料金鑑定一圓 一生秘訣三圓 ▲地方은 生年月日時分明記送하면 詳細寄送하오 時未詳則 相보러올때에 男子는 帶과女子는 분바르지말고오시오

京城府鍾路帝町六百八十七番地 東大門郵便局所 姜南月觀相所

百日咳에 고데스 コデス

流行歌 OKEH 12113 산호빗하소연 李蘭影

오-케-레코-드

꽃구경갈때의 봄철衣服엔 모양조코 때안뭇는 「朝鮮衣服동정」을 다시면 옷맵시는 제비가티 산뜻하다

最新發明 朝鮮衣服동정

八大特長

一、本商店에서 製造發賣하는 從來의 各種セルロイド製동정의 缺點을 根本的으로 改良한 實로 完全無缺한「동정」입니다 二、本品을 가벼운 衣服에 取附하면 더욱이 그特長을 發揮합니다 三、注文時는 代金의 三割以上先金이잇서야 物品을 發送합니다 (多少라도 內金이 無하면 未安하오나 出荷치 아니함) 四、商品無代進呈、見本請求時는 五十錢小爲替同送要

京城府鍾路三丁目四五 大阪 サイワイ商會 電話光(3)二四七五番·振替京城一六八二六番

實用新案登錄願 第四一七八號

慢性胃腸病에는 アイフ

아이후

過度의刺戟에胃腸은허덕인다

消化不良·食欲不振·便通不整은그의愁訴

救護治療와機能强化에治療藥 アイフ를!

우리들의 生活이 時代와함께더욱 複雜해저서 繁忙이더해지면더해질수록胃腸을 刺戟하는경우가 더만허질것입니다마는 特히 今日과가티 平素의 二倍三倍의 勤勞들 必要로하는 非常時局에잇서서는 自然히 心身의 無理强行으로말미아마 過勞不攝生에기울려 胃腸을 刺戟할경우도 만허지기쉬운것입니다。

그結果는 消化不良、食慾不振、便通不整等 胃腸機能의 失·調를 招來할뿐아니라 나아가서는 榮養을害하고 體力氣力까지도 低下시킴에이르게됩니다。 여기에救護治療와 機能强化에 最近 治療藥アイフ가 盛히賞用되는 所由緣이잇는것입니다。

元來吾等의 胃腸壁은 粘膜、粘膜下組織、筋層、漿膜의 各層으로되여 彈力性이 豊富하고 그自體가 非常히 强靭할뿐아니다 알카리性粘膜液吾에 덥혀잇서 消化力이强한胃液에도 侵害되는 일이 업는것입니다。 그러나 暴飲暴食과 咀嚼不充分、食時의 不規則、不消化物、酒、煙草、香辛料等으로必要以上으로 刺戟한다거나 過重의負擔을 課하면 粘膜이거칠어저서 炎症을이르키는 故로 胃腸筋肉이 弛緩해서 收縮作用이 變해지고、分泌神經이 興奮되여 胃液過剩症이나胃酸過多症을이르켜서 胃腸運動의圓滑을缺하고 消化酵素의 分泌를 妨害하는等 여러가지障碍를 招來하는것입니다。

食欲이업다거나、잇서도생각대로먹을수업다거나、아무것도먹지안해도 胃와下腹이 불저서답답하며、가슴이 쓰리고、嘔吐症이잇고 트름이 날뿐아니라 振水音이나 腹鳴이나서 空腹時에는 아프고 泄瀉、便秘가나서 苦痛한다는것도 모두이때문인데 放心하면 慢性症으로되여 潰瘍、癌腫까지 誘發하는 危險이 따르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徵候가잇슬때는 먼저 治療藥アイフ를 服用해서 適當한 治療·周到한 攝生으로 病魔의 侵蝕을 極力防止하는것이 第一입니다。

治療藥アイフ에는 病源對症二重의 作用이잇고 主藥이 胃腸內壁의 病變部에 沈着해서 炎症을 治癒하고 粘膜을 强케하며 弛緩을 緊張시키며 分泌와 蠕動機能의 異常을 調整하는 同時에 腸管內의 有毒物質을 吸着해서 體外로 排泄하는等 廣汎한 病源治療를營爲하야 아울러 가슴쓰림 噯氣、건구역、胃痛、腹痛、泄瀉、便秘、嘔吐、消化不良食、欲不振等의 諸症狀까지로 消退해서 機機能의 恢復을 迅速케하므로 이러한 無理不攝生에 基因하는 胃腸障碍를 安全且合理的으로 治療할수잇슴니다。

002935

定價

四日分	七十五錢
八日分	一圓五十錢
十七日分	三圓
徳[illegible]十一日分	五圓

重症에는特製アイフ
便秘症에는加減アイフ
全國到處의有名藥店에잇슴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番

입학 입네 진급입네해서 복잡해진씀씀이
나쁜버릇은 돈꾸기와헤퍼쓰기
부형은 보살펴서 주의시킵시다

요즘 소학교나 중학교에 새로운 제복을입고 통학하는 아동들은 보는것마다새롭고 처음으로 당하는 단체생활이 무척 즐겁고 자극이 만습니다。

그러므로 조흔편으로든지 납븐편으로든지 입학초기엔 아동들에게 영향이 만코또 이영향이 구더저서 성격을 만드는수가 만흐므로 부형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제일 첫재로 말슴드리고 시픈것은 아희들의 돈쓰는 버릇입니다。

지금까지는 혹 어머니를 졸라서 일전한푼이나 두푼을 어더가지고 사탕이나사 먹든 것이 학교에 입학하고보면 돈을 더쓰고십허합니다。

다시말하면 다른아희들이 돈을 가지고와보면 저도가지고십고 제호자 무엇을 사고십기도하고 공연히 과자라도 사서동무들게 자랑하고 시퍼합니다。

이러므로 부형되는이는특별히 주의하야 다문 오전이나 십전돈이라도 까닭업시 주시지말어야합니다。아희들이 돈을 풀고 다니며 제맘대로 쓰는건 매우 조치못한 버릇이니까요。◇

일러범으로부터 상급반에 지의 어린생도에게는 가령 일주일에 용돈얼마식을 주는것보다 꼭 필요한때마다 주는것이 조흡니다。제들을 면 연필은 세자루 조히, 면, 붓, 이런학용품을 쓰라하지만 사게해서 애껴쓰도록해야합니다。공연히 너무 만히사주면 물건을 액길줄모르고 막우 헤피쓰는 나뿐 버릇을 배홉니다。

그리고 집에서 돈을 주어서 제손으로 사물들은 무엇이나 부모님께보히고 이러이러한것을 그돈으로 삿노라고 최다 일러바치는 습관을 기릅니다。그리고 아희가 꼭필요한것을 사달라고할때 부모되시는분은 공연히 역증을 내시거나 꾸지말고 얼른 승락하셔야합니다。◇

삼학년 이상이되면 아희들은제법 돈쓸줄을 알게되고 또무엇이나 만히 사고시픈 욕심이납니다 그래서 돈만 잇스면 벌벌에 다쓰고 도라다니기 쉬읍니다。

그러나 이때 만일 제손에 돈이업스면 아희들은 다른동무에게 꾸기를 잘합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고할수잇습니다。

삼학년 이상이되면 아희들이 어데게 철이제법나고 저혼자라도 무엇을하게되는고로 일주일에 얼마씩이라도용돈을 주는것이 괜찬습니다。

그러나 그저 한부로 주시면안됩니다。꼭 쓸것은 부모님께 어데 어데쓰노라고 말슴드려야합니다。

다른 동무의 돈을 꾸다는 것은잘못하면그것이버릇이되여 쓸데어지 남의돈을 꾸어서 함부로 쓰는수가만습니다。그러하야 나중에 갑흘수가 업게되면 그때는집의돈을 몰래 훔처내다든지아주 망나니짓을하게됩니다。

이러한 아희는 대개 어릴때부터 돈을 함부로 끄내다가는 동무들에게서 아주 제노라고 뽐내고 돈만잇스면 무엇이나 할수잇다고 허영심이 늘어갑니다。이것이 불량소년이되는 그첫걸음이 됩니다。

학용품이든 작난감이든 무엇이나 돈으로 주어서사는 것보다 물건으로 사서주시면 조흡니다。그리고 활동사진가튼것을 혼자서 보러다니도록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돈을 경솔하게 쓰는 버릇을 배우도록 가르쳐주서야합니다。

못가 양지짝

속옷하나로 맵시가달라저
洋裝 ━ 코르세트도자기몸에 꼭맞는것을써야해요

인제 봄이되엿스니 여러분의 양장맵씨가 갈로수미레 나비인양 밧구어질때입니다。

봄이되면 제일먼저 우리는외투를 버서바립니다。그뿐아니라 두터운 옷도 집어치이고 비단질이나 가는 대님도찐"세-타"가튼것을 입습니다。

그러면 몸의 곡선이 확실히 거름로 보히는데 실상 양장의 아름다움은 이선들을 잘살리는데 잇습니다。그러케 선을살리자면반드시 또레쓰 미테입는 속옷들을 썩잘 구려이 맛게 업어아지 그러치안흐면 아모리 조흔옷을 입어도 봅이나지안습니다。

시미-즈 =양장속옷은대개 아시는바와가티 판쓰, 시미-즈, 콜셋트, 스립부등이 잇습니다。

맨미테입는『판쓰』는 매일가티 가러입는거기때문에 옛은『메리야쓰』가조코 그러타 이것도 몸에 꼭맞지 안흐면 역시 아래도리가우습습니다。

『판쓰』 면주가튼것은 되려조치 못합니다。빨내하기 쉬운것이 제일입니다。

『시미-즈』 도 리아며 쓰등의 엷고 몸에 꼭 달러붓는것이 조흡니다。

『코르셋트』 양장스타일에는 업지못할것입니다。지금으로부터는 콜셋트는의복이는 이십오센치이상가온데가 넓은것이 조흡니다。외국부인들은 이콜셋트를 대단히 중요시하기때문에 이것만 전문하는상점도 잇지만 일본내지나 조선은 그러치못합니다。

이루·옷을 맞춤수가업스면 기성품을 사서 자기몸맛게허라가튼테도 주립테는 주리고 느릴테는 느려서입는데 좋든곳은 바느질한테를 뜻고 거기에다가 그림 두하게『렌쓰』가튼것을너허서지으면 썩조흡니다。

『시미-즈』 이것은겉옷보다도 더조흔옷감으로지어입으서야할줄압니다。본래 양장의본바닥인 서양여자들은 속옷을 기가맥히게 회려하게 입습니다。그래서 속옷에수를노코 레-쓰를 달고-정말 마음을 씁니다。

남에게 뵈이지안는 속옷이라하야 되는대로 입는것은 정말 잘입는옷이 아닙니다。

『스립부』던지 『리본』으로잡아 맵니다。그러데 『스립부』는 할수잇는대로 헌겁을 빗두로(斜切)비여서 만들면 몸맵씨가 조흡니다。『스립부』는 드레쓰보다 약사쎈치쯤 짧게하면 조흡니다。왜그러냐하면 섯슬때는 괜찬라가도 안즈면 흉합니다。

또는 속옷이라고 헐어서 그냥 입지말고 대림이질을해서입으면 모양도조코 빨리 떨어지도 안습니다。

니다。그리고 속옷을 무명으로 지어입어서는 겉옷의 선(線)이 아주 죽어버리는 것이니깐 할수잇는대로 면주던지 『베베르크』쯤으로해 두십시요。

역개는 『시미-즈』든지

양말 =똑바로 신는것이몰론 모양어잇고 봄에는 범우짓훈색보다 오히려 윳색의 좋지혹빗 정도면 조흡니다。

그러데 양말은 빨면 벗어다소간 여러지니까 그것도 생각하시고 또살때양말속에 손을 너허보아서 신은후에 어떠케 빗칠지 그것도 살펴사시면조흡니다。

・또는 양말을 오래신는데는자주빠러 신어야한다는사람들이잇는데 그건 틀린소립니다。

남은 인조견 양말이면 넘우번번 번번하는게 뵈기실허 한번 빨아신어도 조치만 일원이십전이나 일원삼십전 이상이되면 그러케번번 째거리지도안흐니까 홍여히 신기도전에 빨아신을 필요가업습니다。머나머니해도처음에 제일빛갈도 조코하니 빨지말고 한 사오일간 신으십시요。서양녀자들은아회복가튼데 결코 빤 양말을 신지안는답니다

담배먹으면쉬죽어
그러치만 술은괜찬다!
술꾼들기뻐하라, 저얼굴!

사내양반들은 누구나 다 담배를 피우는데 이담배피우는것이 해롭우나 리로우나하는것은 옛날부터 말썽이되여 오는것입니다。

그러데 최근 미국의 풀-이라는 학자가 담배는사람에게 대단히 납부다는학설을 발표해서 담배조화하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엿다합니다。

『최근 사람의 장수법을 여러가지 방면으로연구하는데 특히 담배먹는것이 단명(短命)에 큰관게가잇는것을 알엇다。담배먹는 사람 백명에 아흐명은 담배먹지안는 사람들보다 빨리죽는다。담배붙음을 빨대마다 자기의 관(棺)을만드는셈이다』

이러케 풀-교수는 발표햇는데 그교수의 말에 의지하면 담배는 해롭우나 술은 조흡식먹어도 괜찬타는것입니다。오래 장수하기를 바라는 분들은이제부터도 속히 담배를 끈동저야한답니다。

전기고고켜는데 스위치로

전등불은 필요치안흘때는 꺼야합니다。패니 켜두면 전기가 그만침 허비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기·여령을 켜는집은 스윗치를 드나드는 문설수에 박아노코 늘 손쉽게 켯다 꼇다하는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불을 끌때는 꼭 스위치로 끄는것이오 다마를 비틀어 빼아서 끄는것은 재미업습니다。잘못하면 감전되기도 쉽고 전기 다마도 쉬 상합니다。

상명기예학원에서도 산술, 국어, 영어

시내중학정 십사번지에 잇는 상명고등기예학원(中學町祥明高等技藝學院)에서는 이번신학기부터 본과(本科)생에게 일반기예전문과목외에 국어, 산술, 영어시간을 너허가리키게 되엿다하며 전공과 본과생의꽃수보수의과(選科)생은 모집치 못할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동학원은 이번에 동경여자미술의교사범과를 마치신 박갑분(朴有分)씨를 맛게되어 일층더 원생지도에 힘쓰게되엿다합니다

우리차지

퍼꼬리처럼

창가 시간에 선생님께서

『자- 여러분 내가 인제 이름을 부를테니 그분은 이러서서 저 꼬리처럼 고흔 목소리로 노래해보세요』

하고 영애를 불러세웟습니다

영애『퍼꼬올 퍼꼬리 로』

(경성사람 문동선)

長篇小說 愚氓 【9】

朴泰遠 作　洪祐伯 畵

溫泉場小景(五)

나제 방안이 가득하게 들어노혀는 이부자리가 언느름에 알전하게 한편에 정돈되여 잇다 이방주인도 머리를 빗고 화장을 새로한 모양이다。여호노드리만은 못하여도 역시 고흔얼골이다。여호노드리 혀보다라 볼은것을 보면 응당 그보다는 나이가 아래련만 한마흔 이나 확실히 되여보이는것은 아마몸에 병이 잇는까닭이지도 몰은다。

『어려운 행차 하섯군요』

여호노드리는 위선 화수를보고 방그래 웃는다음에

『어서 들어오십쇼』

하고 최건영이를 편하게 본다。똑똑하게 살이찐 품은얼골에 눈이 가늘고 적은것이 약간 현이라면 현일까─그래도전체로 보아 남자로서 인물이빠지는편이 아니다。나이는 스물칠팔이나 그밧겐 더안돼겟지만얼는 보기에도 돈푼이나 가진 덕에 오엽깨나 하여본듯십다。

어지 세사람의 얼골을 번갈어 보고있는 이방주인이 머리맛해상우에서 파도를 집어든다。

『화수씨、그저 예가 내방이거니 생각하시구 편히 게서요』

『그러케 손님 대접 하시면 우리가 불안합니다。헤、헤、재민는 얘기두 허시구……』

여호노드리는 그러한말을 하면서 술그머니 화수편으로 좀다어안젓다 최는 그것을 못본체하며、

『얘기두 얘기지만 우리 후조사 하는거나 마침시다。』

듯을 한개 집어 쩍쩍을 뱃진다。

『화투조사요? 참 우리가 재인살 못이겐군 저사람은참씨구요 나는 버들푸시 류가에요 여자니까 이름은 업습니다』

『네、류선생、강선생… 두분이다아 서울이시죠?』

『네- 나는 다옥정(茶屋町)、저사람은 관수정(觀水町)…』

『그럼 서울 양반만 세분이모이섯는데 내가 재처거뒤어를

『최선생이시죠?』

『제 성음 어떠케 그러케잘아십니까?』

『아 그럼 몰으구요? 안악읍내선 이름것두 업지만 신천온천까지두 성화가 울럿는걸요』

『하、하、하…여방에서 하는비밀이야기를 그러케 엿듯으시면 안되는데…』

그러나 여자는 그말에는 대답으로 곳화수편으로 향하여

『화수씨는 계동(桂洞)서 오래 사시나요?』

어떠케 알엇는지 그러한것을 청연스럽게 못는다。

『오래 살엇두 업습니다。어제 한삼년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아까 저녁상을 물릴때 장서방이 바더간 숙박계라도 여자는 보앗나보다고 생각하얏든것이나 잡깐 보는것으로만 끄치지 안코 벽겨서 핸드백속에 간수하다 여자가 그것을 고대로 수첩에고 잇다는것까지는 알까닭이업섯다。

최는 약간 눈을 크게뜨고

『현주소까지 알고 계신것을보니 그럼 두분이 구면이시로구면』

『구어 구면일것은 업서두 선생네편은 일쪽 알엇죠 하여튼 상해서부터 한차를 타구왓스니까요』

미리 일러두엇든듯시퍼 장서방이 쟁반에다 파일을 바처들고 들어왓다。이제껏 방안에 어온 모양이로군요 푸대접받기전에 일직어니 몰러나야겟군』

룸당인지 진담인지 그는 자리에서일어나 문으로 나간다。화수가 벌어 일어나기도 안됏고 혼자안저잇기도 거북하여 망설거릴때、여호노드리가─그러고 잇는것은 아니요 그것을 불으기로 하자─류씨가 눈웃음을 치며

『변소가 어떱습니다。조심해다녀오쇼』

한마디 한 다음에 즉시 어조를 고치어

『파일 좀 드세요………언제한번 뵈일두 업는데 이러케 오시라구 허구 옷구 지꺼리구…… 아마 배지못헌여자들이라구 욕을 하시겟지만 그건 뭐 쳔벽의 얄굿헌 노릇이죠………』

최와 수작을 하든때와는 아주 달러 말소리가 은근 하고 밝아보는 눈이 달러 화수는무엇이라 대답을 하여야 조흘지를 몰으며 그냥 얼골만을 붉혓다 그모양을 좀더 탐스러히 사랑스러히 밝아보며

『욧은 나중에 앗만을 허시든、이자리에서만은 유쾌하게 좀 놀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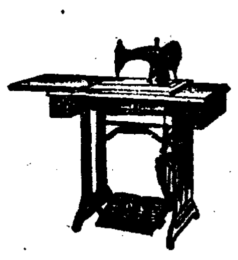
화수는 가슴속에 꼭어운 짐을 느끼며 문득 눈을 들어서 여자의 얼골을 똑바로 밝아보앗다。류씨의 양볼이 마치 소녀와 가티 붉다。

世界一品質の良い! 値段の安い!

◇日常의家庭生活에 미싱이잇고업는것은 能率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顯著한 差가잇는것입니다 衣服의裁縫、刺繡等이 滋味잇게잠깐동안에될수잇서 家事의能率增進에、大節約에、아주큰도움이됩니다

◇品質의優良함과 價格의 低廉함이 世界第一이라고 內地는勿論 海外諸國으로부터激讚을밧고잇는國産『蛇の目ミシン』을只今에는어느분이라도손쉽게購入할수잇는 月賦販賣가잇습니다 左記로申込하시면 即時美麗한型錄을無代로 送呈하오니 即時葉書로 申込하심이 便宜할까합니다

資本金參百萬圓 帝國ミシン株式會社 朝鮮總中央店
京城府本町二丁目八十五
電話 本局 三四四七番
振替 京 一八二九五番



直營 分店 七十餘所의미開設함

◇全鮮主要地七十餘個所에는이미直營分店이開設되고도各地에開設中입니다

長期間月賦로品質을保證하는 蛇の目ミシン은直營分店以外에서는販賣치안습니다

國産 蛇の目ミシンの月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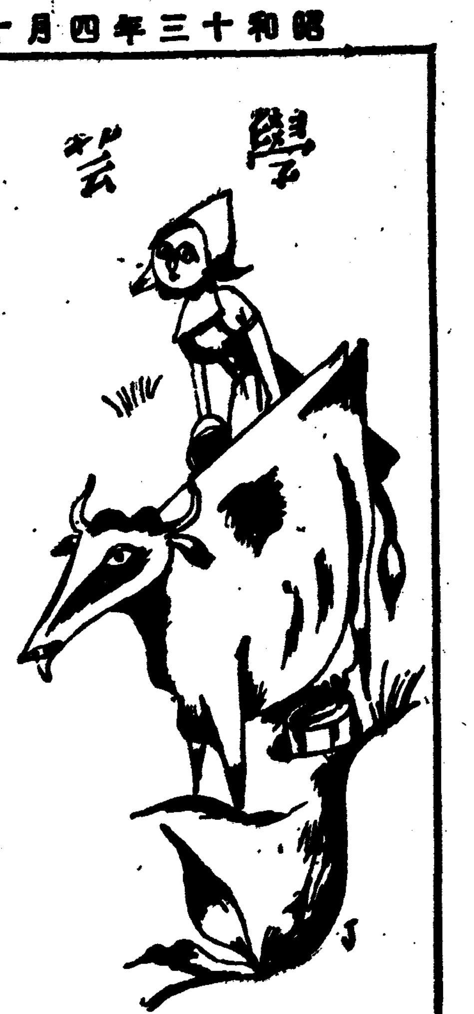
科學と自然が…
生みだす健康美!

クラブ乳液은健康化粧의基礎다

……라고大評判인것은호르몬드即科學과自然의힘에依한것입니다 即 호르몬이直接살결에서吸收되야內皮의榮養이되고、주름·느러짐을防止하는것이며更히クラブ乳液은化粧下에살결의榮養料、強壯料로或은淸掃料、白粉라는물로써도자못經濟的입니다

이三麗人을……
만드러낸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젊고 어여뿐 入江孃、獨特한魅力을 가진高杉孃、淸淸한 新女性高峰孃의美는 化粧下에 クラブ乳液、白粉下에 クラブ美身크림、白粉에クラブ가루白粉을쓰는 까닭입니다



現代와詩의르넷상스

—文化部面과그것의享受範圍—

⑥ 金起林

當分間 文學理論은 좀더아끼고 그대신實際作品의分析、評價를 주로일삼는 實際的인批評이 지금보다도 훨신旺盛해지는것은 우리文學의發展을위해서 얼마나 더有用할지모를것이다 비록한作品이라고할지라도 철저히 分析해서그

(構)

造와「리듬」과 그속에서 作者가시험한技術과 거기具體化된作者의思想과 그것들이讀者에게주는 效果의新鮮度와 深度와 및그것들全體의 미테흐르는社會的인制約의힘과 形態마저를될수잇는대로 主觀을깡검이업시 위선은 作品이주는대로바더서 提示하고 다시거기에比較、判斷을 나린다고하는것은 얼마나어려운일이냐?、그러나 作者나讀者가 아니文學그것이 批評에향해서要求하는일은바로그일이다。

◇

이러한實際的批評은 直接詩作에 從事하는詩人이아니고는 充分히 할수업다는 觀點에서 批評專門家의 것보다도 實際家의 것을 더노피 評價하려는"T、S、엘리엇트"의意見은 文字그대로 들을것이아니라 英詩壇의一部의 批評專門家에대한 揶揄로 드를때에 더욱자미잇다 事實우리는 詩人自身이 얼마나무던時의 批評家이나하는것을

(發)

見하는데이르지아라 實컨대批評家가 한 作品이나作家를 批評하려고할때에 實驗室로드려가는 科學者와가튼 敬虔하고冷靜한 態度로써 對하며그손에쥐인 器具가 科學的方法이나 아니냐하는點이 문제다 오늘出版되여나오는 이만흔詩集속에서 지극히적은 몃篇이거우 이러한實際的 批評의對象이되나마나 하다고하는것은 時의明日을 위해서

致命傷이다 우리가批評家의[illegible] 氏를 몹시생각하고또 期待하는 것도 이러한데까닭이잇다。

우리는 또詩와批評을 서로융납할수업는것처럼 말하는사람을 구경하나 그는不幸히 조치못한 批評만 본때문에 怯을낸것이고 健全한批評은 언제고 詩를길르고도옵는것이다。

끄트로 詩의敎養에대해서 살펴보자 詩에대한 바른敎養 有用한敎養이 어떤것인가하는것은 아페서 批評에대한이야기를하면서 벌써充分히 暗示되엿다고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서다시한번 詩의敎養이 時自體의 普遍化를위해서뿐아니라

(文)

化全體에대해서 얼마나 重大한[illegible]를 가지고잇는가하는點을 돌보므로써 이論文의結尾를 삼기로하자。

詩의敎養의 目標는勿論 詩人과讀者에게 時의享受에대한感激과및鑑賞力의擴大 深化를도모하는데잇는것은勿論이다。 그런데이 問題는 敎育問題一般과 끈어서 생각할수업는일이고 또그社會의 文化全體의進步와 떠러시켜서만 생각될것이다。그러므로"리챠ー즈"氏나"엘리엇트"氏나"파운드"氏가 詩를이야기하면서 가끔敎育과 詩의關係에 말이미치는것은 當然한일이다。 웨그러냐하면 詩는 한社會가 쓰고잇는 精神的交通의 道具로서의言語의 가장含蓄이기픈形態인까닭이다。그속에는 그社會의 情緖生活의 기픠와 文化的感覺이가장洗鍊된 모양으로 담겨잇다。 겨꾸로이야기하면 時는또한 그러한것들을 [illegible]化시키고 [illegible]하는 가장重要한手段인 셈이다。한社會가詩를 [illegible]가지고잇고 또文化全體의[illegible]에 거기서는 언제고 詩가씨어질것이다。 [illegible] 正確한"씨를"로서의[illegible]를쓰고 情緖生活에 잇서서는 詩그것을 [illegible]는데가 온다고하면 그때서 詩가비로서 어지지안는다고하면 그것은 오히려 詩의不幸스러운 [illegible]것이다。 웨그러나하면 거기서는사람들은 日常會話自體에잇서서詩를쓰고잇스니까—(四·一〇)

移民部落見聞記 (七)

李泰俊

—도…포…로…바…ㅣ…쥬—

어느날 나는 일어나는길로 移民村에 갓다 닐러가 移民村事情에 밝은 朴東에게 紹介를바닷다。

新京에서 가장오래된이요 가장큰[illegible]가 일러나던곳이요 가장먼저 朝鮮人의 손으로 큰水路가 [illegible]를 貫流하게 된데가 萬寶山一帶인데 萬寶山의 여

[illegible]中에도 新京서 자거 便利한 곳은「장자워후」(將家窩堡)란곳이라 한다。그러나 알고보니 거기도 그리 交通이 便한곳은 아니다。新京驛에서 白城子行을 타고 [illegible]停車場에서 나려 朝鮮里數로는 한三十里 도러가야 朝鮮移民의집들이 나타나기시작한다는것이다。朝夕으

로 [illegible]는 벌써 노젓거니와 [illegible]에서 나려 三十里가 못되다。길들도 그리 [illegible]일뿐 아니라 [illegible]를 모르는 나로 길을 물어갈수는 업슬것이다。[illegible] 해봐도 안되고 [illegible]아봐도 갈수업다는것이다。이왕이면 새로 드러와 [illegible]에 이를 [illegible]기 시작하는 [illegible]고시펏스나 그런部落을 보려면 [illegible]으로 가서 [illegible]入植(移民)을 하는대로 가야 본다는것이다。그것은 [illegible]의이름이나 [illegible]으로 되어지는것이기때문에 名目여서 차저가기도 어렵거니와 거기도 [illegible]가는데가 그런 [illegible] 인데 明月[illegible]란 [illegible]에서 나려 가까운 入植地가 五六十里、그다에는 百里 二百里식 [illegible]로 드러가야 하

고 아직 그곳에서만은 [illegible] 나를 위해 가려다도 [illegible]을 해주는 [illegible]이라 하니 그러[illegible]으로 드려가지만 [illegible]이 必要하고 [illegible]을 한다해도 그야말로 [illegible]가 업시는 나설수 업는것이다。이런 新入植地는 [illegible]하고 [illegible]「장자워후」로나가기로[illegible]하니 마침이다。[illegible]오기를 내일아침일에 新京에와잇[illegible] 그곳[illegible]사람들의도리가 [illegible]이잇다는것이다。[illegible]新京서 [illegible]하고 어든날아침車[illegible]에 나가니 [illegible] 서울[illegible]기를 입은사람도 [illegible]이저네군다 그[illegible]을 따라가니조[illegible]나잇고 所謂自由移民인 中年양주가 안해는 저예이를업고 떠나[illegible]기집에하나를 [illegible]고리바탕으로 안젓고 남편은 [illegible]

…池…塘…

新舊義州變遷과 御駕의駐驛地

黃義敦

報漏鐘

도라서면서 그돌아페 달려잇는 古鐘을 차저갓다。그鐘은 本來 來賓(今郵便局倉庫)아페 달녀잇서 城中人에게 時刻을 알녀주든 報漏鐘으로서 二十餘年前에 이곳으로 옮겨둔바이라한다。鐘의 高가 一、一六米 口徑〇、八二米 口周二、六三米 厚〇、一米 重二千斤으로서 側面에는

『道光十年庚寅六月十七日告功』

『府尹宋祥來銘』

『進士黃治賢書』

等의 文字가 서여잇는것으로보아서 그가 距今百九年前에 되것임을알만하다。그러나 그鐘의 鑄制란든지 乳廓이라던지 龍頭라던지 어느方面으로보더래도 아직藝術的價値가 不足한作品이다。神韻하고 雄偉한 慶州奉德寺鐘을보고 感歎하든나의눈에는 이鐘이 얼마나 拙劣하고 不足함을 느끼지안핫슬수업다。그에따라서 南北朝時代에가장 偉大하게 發展되얏든 우리藝術이 李朝末葉에와서얼마나 衰頹하얏스를 痛歎치아니할수업는바이다 다시금도라서 階下로나려오면서 右便으로 꺽처잇는 鐘은마당이 옛날義倉의 遺墟임을보고 그에對하야懷古의 느낌을마지 아니하얏다 萬歲門을나서자 左便으로 列立한 數十個의 大小碑는모다 옛날에某觀察使某府尹의 善政碑 또는 永世不忘碑이다。

그러나 平生에 金石文을 愛好하야 古碑를 찻자다니며 拓本하기로 일삼던 나로서도 이碑林에對하야서뿐 一顧의 餘念도업서 곳도라서고말엇다

九層塔

그길로 義州城內의 主山인 三角山을向하야 올으자 처음으로 보이는것이 九層石塔이다 그는本來1義州郡古館面古長安에 잇든塔으로서 그所在地의 地主車某가 賣渡한것을 官廳의 干涉으로 다시이곳에갓다세웟다한다。移轉時에 錯誤인지?第三層의屋石이 倒置하얏슴은 참으로 遺憾되는바이다 그러고 그의手法이 매우 古拙함을 보아서 적어도 李朝以前의 作品은못하며 第一層에 彫刻된 蓮花紋의 放長雄健한點으로보아 北方人의 大膽的氣分이 나타나는듯하다

林忠愍遺蹟碑

三角山中腹에 서잇는 크나큰 碑는 義州郡民의 가장 敬愛하고 崇仰하는 忠愍公 林慶業將軍의 遺蹟을 紀念하기爲하야 세운碑이다。將軍이 義州府尹으로 와잇는동안 義州府民에게 永遠어잇지못할만한 善政을 끼첫슬뿐아니라 荊棘이 滿地한 亂世를 當하야 [illegible] 나아가던 그의 孤忠危節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를 崇拜치아니할수 업는바이다。더구나 그의 雄圖大略을 이루지못하고 中途에 橫死케되얏슴은 참으로『出師未捷身先死』의 詩句를 읊으면서 英雄이아닌 나로도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듯하얏다。

우동치는소리도音樂 前生緣分의이職業

—一人多業主義者朴慶浩氏—

朴慶浩氏—하면 누구나 피아니스트라는것은 다알고잇는것이다

그밧게 또?—하면 그적새는 이루 다헤아릴수가업스나 대추려보면 曰、『유모어小說家』『畫家』『世界未來公會會長』『支那料理집主人』 等등이다。

이케되고보면 어느게 本業이고 어느게 副業인지 자못 捕捉하기 困難한일이나 그중에서도 一見 서로 脈絡이업는듯이 크로스·워드한것을 끌른다면 피아니스트는 支那料理집主人。

이異味잇는 레ー마를 가지고 記者는 南大門通 某料理店이라는 門을 차젓다。

門에 드러서면 正面壁에 걸닌 額이 붉은 문의에『[illegible]來賓』이라고 金文字로 쓰고 배귀에 붙은 聯경을 다렷스며 그여페 蓮池仙女가튼 美人畫가 걸린것을 보면 이『浪漫的』風景이 十二分으로 支那的鄕土色을 나타내이고잇다。

그러면 이집主人인 朴慶浩氏의 理想이나 風采는 이『浪漫的』風景과 얼마나調和되는가?『閒雲孤鶴』? 을 것고 寄書가튼데를 가마니 드려다보니 例의世界未來公會會長인 朴氏料理床에 업드려서 무엇인지 박부게 붓을 달리시고잇다。

조케말하면 眉淡한 [illegible]도하나 삼상인곡 氏의 自稱하시는 眞髓에 조곰도 遜色이업슬만큼 文字 그대로 未來公이시다 來意를 告하니 [illegible]이 눈으로 集中되면서어 [illegible]은 지문을 뒤으로 제치고 한번 크게 우스면서 어째까지 쓰시든 原稿紙를 주섬주섬 거두어서 무슨 노ー트쪽속에 감추시다 못지안어도번연이 알일이지마는

『유모어 小說이신니까?』

시침이를 떼엿더니 또 한번 아까와가튼 表情으로 우스면서 『[illegible]』에서 이달十五日까지 揭載되는 連載物이래서 이렇게 바쁘게 쓰신다구。

그다음에는 의례히 코ー스에 依해서 製花專門은 언제、그만두셋스며 한차례의 問答이지난뒤에 『대체 선생은 支那語를 하실줄아십니까?』 하엿더니마는 『잘은 못해도 부리는사람이 다 알아듯게즘되지요』 『어떠케 그런게되셧습니까?』 『아 米國가기전에 南京에섯스니까요』

『그러면『렝수이 이완달래』나『이거짜장멘』따위는 아니겟습니다그려』

哄笑。

『아니 米國잇슬때도 六個月동안이나 거기서 支那料理店에서 웨러ー노ー트를 햇습니다』

하기에

『그러면 아주 前生緣分입니다그려』

하엿더니마는

『지금 이것을하는것도 그다지 緣分이 업는것은아니지요』

하시고 또 [一]層의우슴이한번。

다시 本職인 피아니스트를차저서 대체로 무슨和音이 나는가 한번 키를 눌러보앗다。

『獨奏會는 언제 하섯습니까』

『一千九百三十三年봄이니까 지금부터 五年전입니다。그뒤에 도한번 獨奏會를 하려고 프로그람까지 다배혀 두엇섯는데 갑작이 손이 탈이나서못햇습니다。』

생각햇던바와는 딴판으로 悲壯한 소리엿다。

『뭐 내가 그것을 시작한것이 반드시 손때문에 그런것은 아니지마는 아직도 손이 快差하지는 안씃습니다』

하면서 손구락이 길숨 길숨한 올흔편손을 내보이신다。

『支那料理는 脂肪이 만허서 먹으면 살이 찐다는데 선생은 한갈가티 말르시기만 하시니 支那料理는 아잡수십니까?』

『글세요 먹기는합니다마는 별로 효험이 업서요』

하시는것은 어떠케보면 은근이 걱정이되시는것가타도하나 실상은 그런것도 아니라 다만 [이]질이나 주먹질로는 世界的水準에 올랏스나 아직 다른方面으로는 微微不振하는 우리로서 일껏 獲得한 氏의 世界未來公會會長이란 榮職에 支那料理로 말미아마 『依附解散』 이된다면 얼마나 슬픈일인가? 支那料理의 脂肪分이여 부대 우리會長의 百人속으로 浸潤하지은 말지언정 엇어 그脂肪에는 [illegible]하지 마시오서。

『그러면 支那料理에 무슨營養的要素가잇습니까?』

音樂家를 相對로한 말이지만 서투루나마 풋까지 調和意識을 가지는것 나의 本分이다。

『글세요 억지로 말한다면 잇슬는지도 모르지마는 不自然하지요 그야 우·동치는소리도音樂的으로 드를수도 잇슬는지 모르겟지요』

『우동치는소리와 音樂?』

『素人』인 우리로서는 모를일이다 아니『玄人』인 氏도 물을일인가보기에 또 層의우슴이지 氏의 單의우슴은 진실로 多彩多色하다。

但 이支那料理店이 營爲에 繁昌을 거듭한다면 나중에는 필라델피아의 오ー케스트라와가튼 오ー케스트라로 채리겟다는것은 氏의 유모어ー가 아니고진실로 [illegible]한 理想이기도하다。

鷺鷥 (六)

玄德作 崔根培畫

本紙懸賞創作當選作(其一)

노마아버지와 홍서는 [illegible] 섬미가 모두 떤이엇다」 홍서가 곳집 일를가볏지는 소를 노마아버지가 부리면 쟁기를 논두렁에 꾸러바쩌판다。소를 몰기전에 쿠한섬미에 자기가 먼저 저리내지못하엿다。홀로 제소하고 대상지고 홍서는 섬화한좋은데에 수속이 무디고 그러면서 서로 손이맞고 통이마저 한구로 풀을 찔러나가도 짝을 지엿다。벼짐을 폴때 서로혼장소에 번바타일人군들에게 위양을는끼다가도 서로[illegible]를 마주볼수잇스면 속이 든든해지든 그리고 도라오는길에도 한자가 올죽이면 한자도 따라서 팔어서 선속집도 드러가고 또 팔어서 나오고하는 그들이다。그러케 빨는곤 기나진 신장노를 묵묵히 것는다。말이 하기실혀 그러는것이 아니엿다 말을 아니해도 뜻이 통하고 말이 마저 행동이 가치되엿다。

그러든 사이는 지금 한자는 여전히 기승기승한데 한자는 병이드러 몸져누엇다。그리고 안해는 홍서의 눈물기여서까지 저주서울집으로가자 [illegible]구니 닭꾸레미를 돌고자주 드나드럿다 그걸 또 홍서는 모를지안는다 얄기는하면서도 구지 굽하지는못하고 다만 허물을 안해에게 입혀 눈을 흘기고 생트집을 잡고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삭어지지안는 나머지마음에서 그는 노마아버지를 차저와미간을 찌프리고안젓다 그러고 그는스스로 더욱미간이 찌프려지것만 거푸저줄렷다。

홍서는 또한번 곳처서 팔을 넷다。

『생굴이 몸에 약은 되는건가봐。 생어사는 사람두 그걸 장복하구 십년일른 [illegible]질이 떠러저데지안어』

이말에 어거대기나하는 듯이 노마아버지는 허저나오는 기침에 등을 꾸부리고 오장을 쏫을듯이 자즈러젓다。좀 잠우룩해서 홍서는 요강을 내려미러주엇다。 컴컴한 속에서 그것을 찾어다니는 노마아버지 손이퉁명스럽다 시퍼다홍서는 주춤하고 물러안젓다。

홍서가 또좀 괴로운것은 노마아버지를 대하고는 공연이 자기도 안해와 한편이되여 철구의 히생을 기다리는듯 시퍼지는거다 자기는 그러지안다는 그변명을 그는 기침 한번을 크게 하는테까지 저도 모르게 표하며 전에어서 놋도록 붐업는 화로전에 손을 걸고 좌미리 놀러안젓게된다。

방안은 뭘릇 조용하다 그것이 또 꽁은 처더지인것 홍서는 [illegible]

[illegible]한 어둠가운데서 [illegible]면서 나 우리나오는 소리로 구구구 구구구、투사나이는 한꿋으로뛰를 몰다。

『저소리 들쥬』

『경칠 우는소리 압어』

멍거니하면 가깝고 가찹거니하면 멀다。봄이 그러케 저저오는듯 그소리는 그윽하다。못목케 쓰려저 잠이 든줄아랫든 노마가

『나 저거 봣서』

『헐 봐 인마』

『개구리야 개구리』

『어디서 봣니』

『기둥네 버리바테서』

『모양이 어떠틴』

『개구리레 뭐 개구리야』

노마아버지는 석냥을 거 볼을 가린손이 마즌편 벽으로가더니 멈췻다。둥잔에 불이 붓기전 홍서는 자리를 이러섯다

집밧은 아직도 [illegible] 바람이차다。그래도 많은 녹어밟이빠지고 바람처럼 한가다 구수한 거룸내가 코에끼치고는다서 얻다。[illegible] 한끼지 서끼면 아산마루에 가까이 나려안고 홍서는 [illegible]되는대루 밖을 노타는 문듯 멈추고섯다。방안에 무엇을 노코나온듯 미진하다。그는 담배대인가 시퍼 허리춤을 더둠엇다。담배대는잇다。그것이 아니엿다。아까 가릅걸을 거르며 하든 생각이 머리에 울랏는거다。그는 경준이가 오목굴논에 거름을 낸것을 온근이 크게 보고、그리고 노마아버지가 그말을 듯고 밥을 추져과 거가따른 장면까지 머리에 거리엿섯다。노마아버지가 거기 무관심하긴 의외다 그는 방에서 깨닷지못한는 허실한감을 여기나와 똑똑이는껏다。

저온 개울아페 이르럿다。건너편 뚝우에 허연 그림자가 길을 비겨 마을 컴컴한 지붕을 등지고섯다。노마어머니엿다。홍서는 멈칫하고 또한번 가른감을 느꼇다。그러나

『이밤에 어델 갓다오슈』

하다는

『아ー랑에 갓다오슈』

그리고 몃거름 지내노코나서 도라스며

『동몽두 업시 하루잇틀두 아니구 어떠케 날마다 다니슈。내보런 우리 기둥어멈하고 가러가두룩허시구런』

그대답은 업시 개울을 건너는 여인은

『잘케 가세요』

그는 노마아버지를 위해 백일 기도를 올린다고 메일밤 동네 [illegible] 다닌다。

肝油의..近代化..

バリハ

一粒肝油

바 리 하

學校에서 家庭에서 會社에서 工場에서 肝油=하리바가 늘리 使用되고잇는리유:

肝油의 效果에對하여서는 疑問視하는이가 업습니다 몃十年에나 몃百年전부터 조금도 流行되엿다 衰頹되엿다 한일이업이 한결갓치 實用되어온것으로보드래도 明白히 알수잇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흉한비린냄새가 나는기름을 만이먹어야 되엇기때문에 누구를물론하고 모다 실혀하엿든것입니다

그러든것이 近年에와서 肝油에 效果가잇는것은 그비린냄새나는기름이아니고 그가운데 極히微量으로 含有되어잇는 비타민에이와 디의 두가지 要素인것을 알게되엇습니다 따라서 기름은 될수잇는대로적고 비타민에이 디가 될수잇는대로 만이含有된 肝油라야만 되는줄을알게되엇읍니다

一粒肝油하리바는

……鱈肝油에비해서 數十—百倍나 진한 비타민에이 디을 含有한 高級肝油를 小豆만한 糖衣小粒으로 만든것입니다 一粒은 一盃의肝油 혹은 十餘個의알과 비등한 비타민이 잇을뿐만아니라 그含量은 가장 진보된 科學的方法에依하야 正確하고도 또한 均等히 測定하여잇습니다 그러므로 微量도잘못고 더구나 그흉한비린냄새와 胃腸에고장을일으키는법이 없음으로누구나 유쾌히服用할수잇습니다

허약한 어린애기를 健康히 하기위하야……呼吸器가 약하신분을 튼튼히하기위하야……產前產後의어머니와 갓난애기의 健康을위하야……또는 視力을몹시 쓰시는분들의 視力減退를 豫防하기 위하야……요새에는 學校에서나 家庭에서나 會社에서나 工場에서나 近代化된 肝油=하리바가 넓히實用되고잇습니다

一日量 幼兒……一粒 小兒……二粒 大人……三—四粒

百粒(幼兒三個月 大人一個月分…)……二圓五十錢

五百粒…十圓五十錢

全道藥房에잇음

東京・大阪 田邊商店

HV-K-30

日活 黃金座

四月十三日ヨリ 四月十九日マデ

大每・京日・朝日 ニュース 10.00 1.00 4.00 7.10

日活東西總動員映畫 忠臣藏 10.10 1.10 4.10 7.30

天の巻、地の巻

阪東妻三郎、嵐寬壽郎、片岡千恵藏 主演

今週ハ特別興行ニ付キ70錢均一

午前中入場者ハ50錢均一

東洋劇場

◉東劇二重興行에注意◉

晝間은映畫……前十一時半始映

夜間은演劇……後七時正刻開演

四月十五日부터▲待望名劇迻上演

靑春座上演夜間劇題

李孤帆作 해바래기 四幕

南宮春作 暴風警報 一幕

愛劇家의定評높기다리든本篇은靑春座의熱演으로드듸여그幕을열엇습니다!

男便의出世와幸福을爲하여홀로울고잇는閨窩의눈물겨운哀史를다가티感激의눈물로吊弔하소서!

晝間映畫—東西名畫再鑑賞祭!

料金 帝仕 階下大十錢 小十錢 階上大十五錢 小

▲特別豫告▼

四月二十五·六日(二日間)府民館에서

빅토·유고原作 李雲芳脚色 噫無情 大幕

(原名레이세나블)

松竹キネマ 明治座

4月11日ヨリ4月11日上映時間表

	1	2	3
讀賣 東朝 ニュース	11.15—11.34	2.56—3.15	7.00—7.19
微笑む人生	11.36—1.02	3.17—4.43	7.22—8.48
モリスシュヴァリエ主演			
吹きのスカンク 隣家を解剖する パテーニュース	1.06—1.35	3.47—5.16	8.53—9.22
母ぞよく知る	1.40—2.46	5.21—6.27	9.27—10.33

次週上映預告 出征 南十字星は招く

若草劇

四月十一日より七日間

	一回	二回	三回
大朝ニュース		2.45	6.45
或る映畫監督の一生	11.00	3.55	6.55
ロッパのガラマサどん	12.20	4.15	8.15
大每ニュース	12.30	4.25	8.25
巨人傳			

(1) 佛A・C・E作 ジャギャラン・ロジヌ・ドレアン主演

(2) 新人エドモ・T・グレウイル監督 東寶作、大河內傳次郎、英百合子、提眞佐子、丸山定夫主演

新富座

京城新富町 電(本)五六七七番

報道戰

監督 主演 [illegible]

空中의特種

[illegible]

新版 鍾소리

[illegible]

産業

「深耕一寸正租一石」 秋深耕積極奬勵
―自働耕耘機를貸付할方針― 京畿道産米增殖計畫

京畿道에서는 米作增産을 增加키爲하야 「深耕一寸正租一石」이라는 標語를걸고 秋深耕五個年計畫을 樹立하야 昨年度부터 實施中인데 耕作面積에 比하야 耕牛가적어 秋收直後 農繁期의 耕耘은 容易히實行되지 안흠으로 水利組合地區 又는農場가튼 耕作面積이 넓은곳에서는 自働耕耘機에依한 能率的深耕이 適當하다고 생각되어 十六日京仁線素砂驛 附近富平水利組合에서 同機의 試驗的實演을行하야 郡農會技術員 農場主 地主等에게 見學시켜 其成績에依하야 同機購入을 奬勵하게되엇는데 同機는一臺에 約六百圓을 要하므로 農場主以外의 一般農家에는 水利組合에서 이를購入貸付케할모양이라한다

安東省各縣鑛業勃興

【安東縣】 東邊道를 大部分包含한 安東省은 滿洲鑛業令이 發布되자 特種鑛業權을 除한鑛區를 許可하엿는데 現在까지에 許可鑛區는 安東省下 一八九鑛區로 安東省下에 埋藏된 鑛物은 無盡藏이라함을 如實히 示現하엿는데 現在許可鑛區中 採鑛操業中에잇는것은 겨우 安東縣金鑛一 鳳城縣金鑛一 岫巖縣石綿鑛一 同縣滑石一의 四鑛區이다. 許可數에比하야 操業數가 激減함은 資金難이나 或은 鑛脈의貧弱이 原因이라推測되므로 當局은 國家의資源開發하는 同時에 東邊道開發上으로보아 大端히 遺憾으로녁이여 이내許可鑛區의操業을慫慂하고잇다는데 各縣別의許可數는 如左하다

▲安東縣金五、金銀銅二二 其他二二 ▲鳳城縣金一八、金銀銅五、其他二四 ▲寬甸縣金一〇、金銀銅一五 其他二三 ▲莊河縣金四、其他二 ▲岫巖縣金四、金銀銅七 其他一八 ▲桓仁縣金一、金銀銅一二、其他七 ▲市 金一

丸ナ管內大豆의 品質向上을企圖
研究協議會開催코

【鎭南浦】 西朝鮮三道에서 生産되는 大豆即㊉管內大豆가 滿洲産大豆에 壓迫되여잇슴을 遺憾으로 생각하고 今般㊉協會에서는 其名聲恢復과 品質向上을爲하여 鎭南浦穀檢支所及關係官局과 協議하고 各地에서 研究協議會를 開催하는一方 耕作期를 압두고 八日沙里院 九日信川 十一日松禾의 日程으로 吉池本所監督課長 各出張所長 道郡係官이 出張하여 大豆의 種子選別指導를 行하엿다는바 成績이 매우 良好하다고한다

年六千餘石超過
井邑種子生産高

【井邑】 全北井邑種子株式會社는 昭和十一年六月頃 公稱資本十五萬圓(一株三千株 一株五十圓)으로 當局의 種子統制方針에 順應하야 創立되엿바 創業當時에는 設備의不備로 供給의 圓滑을 엇지못하엿스나 十二年에 工場增築擴張의 刷新과함께 年五千四百石程度의 生産目標를세우고 常時人夫四十餘名으로 從業케한 바 지난봄에는 넉넉히六千石의生産高를내어 供給에 充實되엿슬뿐아니라 販路도擴大되고生産技術이 進步되어 品質도上等을 차지하고 아니라 殺物監督局品評會에서 一等賞까지 바덧다한다 호히 湖南等地의 種子組合이 種子原料를 責海道地方에서 購入하나 井邑種子의 ...

全朝鮮特産品紹介 (本社主催展覽會記念) 平南北篇 ①

허울과실속이兼備한 德川亢羅의聲價
보기엔적어도맛조흔平壤栗 모양조코튼튼한定州鍮器

平安南道

平壤栗

朝鮮에는 美味로 일홈이 노픈 밤(栗)이만흐나 關西에일홈이잇는밤은 平壤栗이다 그主産地는 成川、江東、江西、順川、中和、龍岡、德川의 各郡으로 甘味가 매우 豐하고 澁皮剝離等이容易한것이 그特徵이다 따라 一般的으로 世人에 嗜好하는바되여 各地에 饌物로使用된다 道外搬出品에對하야는 昭和九年으로부터 道營檢査를施行하야 品質의向上統一을 圖하고잇다 그리고 그主되는 販路는 東京、大阪、神戶、北九州其他에 向한다

絹織物

여기서 産出하는 亢羅、生紬、熟紬、交織布等은 農家婦女子의 家庭副業으로 製織되는데 特히 德川亢羅는 오랜歷史를가지고 그 技術及 品質이모두 優秀한것은 一般需要者가 周知하는바로 다른地方에서는 到底히 模倣할수 업는 獨特한 製品이다 絹布、麻布에對하야는 昭和五年부터嚴正公平한 道營檢査를 行하야品質의 向上統一을 圖하야 販路擴張에 努力하고잇다

無煙炭

이는 옛날에는 利用되지못하던바로 何等 文化의 役割을하지못하엿스나 近代文明의 潮水가 한번밀려오자 비로소눈뜨기始作하야 時代의 寵兒가되고 마럿다 無煙炭은 大同江을 中心으로 百四十餘里 뻐처 鑛脈이 橫走하야 그鑛量이實로 八億噸이라 한다 無煙炭은 石炭中에는 王이라 할만하여 그品質이 頗히 優良하고 價格이低廉하므로 工業用又는 家庭燃料로 需要頗히 增加하야 朝鮮內 工業發展促進上의 寶이라고도할만치 重要性을 띄고잇슴은勿論 멀리 日本內地에도 每年六七十萬屯이나 移出되고잇는狀態이다

陶磁器

平安南道는 陶土가 豊富한우에 特히最近平壤附近窯業에 必要한 優良한原料가 發見되여 企業家들의 着目하고 또當局에서도 道立工業試驗所에 窯業部를 設置하고 試驗研究를 거듭하야 指導하고저하므로 그將來는 매우有望하다 製品은 砂器、井戶茶器、花瓶、酒器、타일、耐火煉瓦、坩堝等으로 一般需要者에게 好評을 博하고잇다(寫眞은平壤陶器)

平安北道

眞鍮器

眞鍮器는 朝鮮의家庭用器具로서 重要한것인데 食器 洗面器 재터리 其他器物로 자못 널리 使用되고 잇슴뿐만아니라 定州 博川 兩地에서 産出하는것은內地人家庭用으로도 만히 使用되고잇다

蘆草筵

鴨綠江下流에 繁殖하는 蘆草를原料로 龍川 博川 義州等에서만드는 筵인데 本道農民은 重要敷物或은 穀物乾燥用의 必需品이다 또 滿洲에서는 穀物用 包裝用으로서 年年이 莫大한 數量을消費하고잇다 近代工業에잇서는 이芦草를 原料로 人絹用펄프製造에 成功하야 不遠 新義州에 工場이出現하리라고한다

筏細工

그原料는 勿論 鴨綠江上流로부터 내려오는 떼의原木皮를使用하야 여러가지細工을加해 花生 籠籠等의 鄕土色彩를 色만을 ... 고잇는데 무엇보다도 野趣가豊富하야 嗜好家들에게 愛用되고잇다

萩細工

野生萩의幼樹로써 義州에서는 椅子 卓子 花生等形態가妙하고 價格低廉한製品을 製造하야 市中人氣를獲得하고잇다

玉蜀黍細工

玉蜀黍의 芯으로만든는 一輪挿이다 現在 이것을 原料로하야 商品市場에 나가것● 이것뿐인데 義州에서는 目下 朝鮮土産으로서 各種의細工品을研究中이다

漆液

生産區域이 泰川郡一郡에 制限되여잇스므로 勿論 그産額도 極히 적으나 品質이 優秀하므로 全國에 알려저잇는데 生産量全部는 거이 大阪方面에 移出되고잇다

乾白魚

鴨綠江下流 即 新義州附近은 內鮮을 通하야 白魚의 大生産地인데 이製品은 他道에 類를 볼수업는것인데 술안주가튼것으로 愛酒家들에게 愛好를받고잇다

苹果

定州郡 郭山郡內에서 生産되는苹果는 아직産額이 만치안흔 關係上 일홈이알려저잇지안흐나 品質은 氣候關係로極히良好하야 最近은滿洲國에까지輸出하고잇다

渭原硯

渭原端溪는 特히 文人墨客間에 珍重되여잇는것으로 石質이 頗히 强한것을 그特徵으로하는데 渭原模範製硯所 渭原公立普通學校等에서 製作하고잇다

(寫眞은 渭原硯)

高粱酒

高粱酒(배알)는 元來 支那産이엿스나 數十年前부터 道內各處에서 釀造를 開始하야 現在는 朝鮮內全消費高를 本道産으로 充하고잇다 其生産高는 每年約三千餘石(價額六十餘萬圓)으로 主産地는 龍山車輦館、龍川南市、新義州府等인데 酒精含有量이 六十度以上으로 脂肪性食料愛用者에 適好한酒類이다

資生堂化粧品데ー 開催

四月一日부터末日까지 ◆ 右記의販賣店에서
資生堂化粧品一圓分買上하시는분마다抽籤으로따집업시粗景呈上
更히下記와如히 **特別大奉仕**를하옵니다

四月中은 價格引上을 아니합니다

마춤내 四月一日부터 化粧品課稅가 實施되어 不得已價格引上을하게되엿슴니다 그러하오나 弊社는 永年의愛顧에 報答하기爲하와 多大한 犧牲을不顧하옵고 四月中에限하야 從前價格으로 奉仕하게 되엿슴니다

化粧品데ー는從前價格과 景品의二重써ー비스
期間中의 買上은 從前價格奉仕와 景品과의 二重써ー비스로 됩니다

■花椿會員인분들에 게는三重써ー비스
會員인분들에게는 上記한 二重써ー비스外에 쿠ー폰券을 添加해서 特別三重써ー비스를합니다

◆五月一日부터定價를改正하옵니다◆

化粧品데ー 參加체인스토아

京城府本町 三越 / 同 山岸天佑堂 / 同 平田百貨店 / 同 星川支店 / 同 三中井 / 同 梅谷洋品店 / 同 愛生堂 / 同 東京小間物店 / 同 北島藥局 / 同 文化研究所 / 同 黑田信盛堂 / 同 川濱濟生堂 / 新町 白石商店 / 同 宮島屋 / 南大門通二丁目 丁子屋 /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局 / 鐘路通り 和信 / 同 韓靑化粧品店 / 同 德永商店 / 同 東亞婦人商會 / 苑南町 大學堂藥局 / 濟洞町 天濟堂藥局 / 堅志町 郭倉藥局 / 黃金町三丁目 橋本藥局 / 同 黃金堂藥局 / 總督府賣店 鮮和會 / 西大門通り 西大門藥局 / 義州通り 中島生生堂 / 竹添町壹 小山田藥局 / 鐘路五丁目 內藤仁壽堂 / 旭町一丁目 本田商店 / 南大門通り 東生堂藥局 / 吉野町一丁目 岡田永盛堂 / 練兵町公設市場 金丸洋品店 / 南山町 翠山莊アパート賣店 / 漢江通三角地 杉本藥局 / 同 藤田天壽堂 / 同 一三 宮本洋品店 / 同 一六 賀生堂藥局 / 龍山元町 大和屋洋品店 / 仁川府新町 山城屋 / 宮町 小西小間物店 / 同 百石小間物店 / 同 福岡藥局 / 本町 潤水小間物店 / 水原邑本町 谷口百貨店 / 開城府 孫洪錫商店 / 南本町 金在鉉百貨店 / 海州南本町 村田洋品店 / 黃海道延安 井上百貨店 / 春川本町 佐々木百貨店

同花園町 松村洋品店 / 江原道高城 藤原藥局 / 鐵原本町 野田商店 / 元山府 鐵原藥局 / 仲町 一見川分店 / 同 富永小間物店 / 同 飯山洋品店 / 本町 明治屋 / 仲町 三中井 / 咸興府 三越 / 本町 花月中 / 軍營通 夏川分店 / 同 ペニヤ商店 / 本町 東洋百貨店 / 咸南興南本町 杉田小間物店 / 興南 朝鮮藥業會社供給所 / 北靑 田代藥店 / 永興 岩田商店 / 利原 利原鐵山供給所 / 城津本町 吉市藥店 / 吉州邑 福顧商店 / 咸北永安 朝鮮藥業會社供給所 / 羅南 カガシ屋 / 本町 伊藤屋百貨店 / 生駒町 浦本百貨店 / 淸津府彌生町 星川分店 / 同 中村洋品店 / 敷島町 丸見屋百貨店 / 港町 毛利商店 / 雄基本町 中丸洋品店 / 會寧本町 岡島賀易店 / 同 上田小間物店 / 西門外 津田商店 / 咸北上三峰 稻田藥局 / 羅津 カガシ屋支店 / 同 小山支店 / 同 朝鮮藥業會社供給所 / 阿吾地 平富洋行 / 龍井市 紅屋小間物店 / 延河街 永泰藥局 / 間島省延吉 倉橋藥店 / 同 本館 / 龍井村 [illegible]

(昭和十三年三月現在)

效果本位의有名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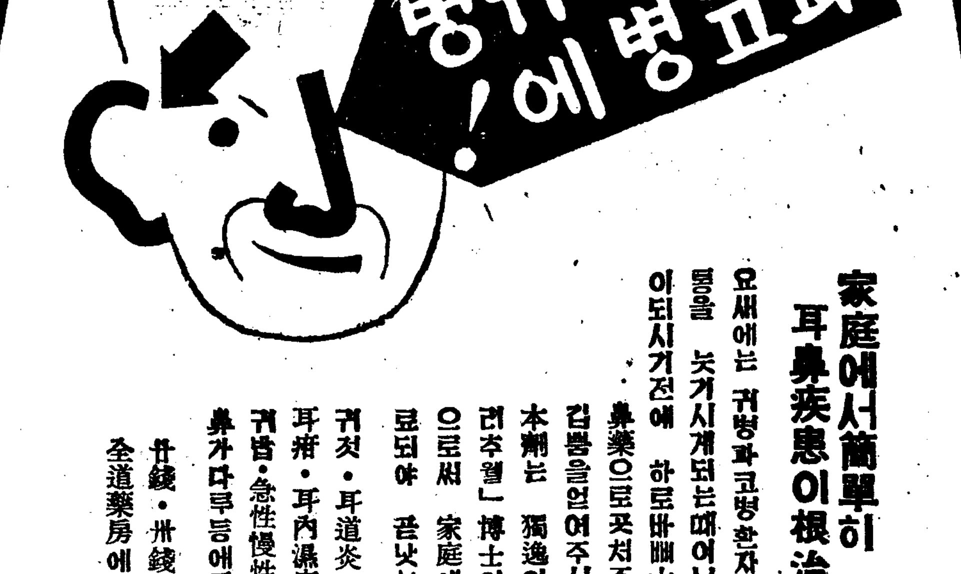
담결니는곳에 마마ー푸라스타ー

아푼곳 담결니는곳 등에붙이면 곧낫는

本劑는 한번붙이면 藥効가 二十四時間이나 두고 持續的으로 발휘됨으로 고롱도 곧개어고 상쾌한 기분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간 어야할로 本劑만이가지고잇는特有한신효입니다
本劑는 고롱을 곧개이게할뿐만아니라 병근원에까지作用하여 근본적으로 곳처줍니다
사용법은 약재의표면에붙은 자ー제를떼여서 적당히 붙이시면 됩니다
神經痛 담결니는곳 견비중 근육통 삐인곳 관절통 치통 乳腺炎에 특효가잇읍니다

약가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各地藥房과大木合名會社에서試用藥을進呈함

위험한 귀병과 코병에!



家庭에서簡單히 耳鼻疾患이根治되는藥

요새에는 귀병과코병환자께서는 몹시 고통을 늣거시게되는때이니 위험한중한이되시기전에 하로바삐大木(오ー기)耳鼻藥으로곳처주시사 根治의 깁븜을엇어주시기 바람니다
本劑는 獨逸의 醫學大家「포리추웰」博士의 처방하신약으로써 家庭에서 간단히치료되야 곳낫는약입니다
귀젓·耳道炎·귀가아푼데·耳痛·耳內濕疹·耳가다루·귀병·急性慢性鼓膜炎·鼻漏·鼻가다루등에특효합니다
卄錢·卅錢·五十錢·一圓
全道藥房에서 판매합니다

大木耳鼻藥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
大阪市東區淡路町

림질에

京都帝大化學研究所 創製의淋疾根治新藥

一、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에서 發明完成하신 特許「金屬으로가노ー졸製法」을應用한약이니 銀과白檀油의특수결합으로强力한殺菌 소독 收斂 利尿 진통작용이 어느약보다도 낫은 唯一의銀內服治淋新藥입니다
二、外部로부터 人工的으로하는 주입 洗滌 挿入藥과는 달느니 內部로부터 藥理的으로 곳처주어서 併發症을防止하며 胃腸의 고장을이르키는법이없이 短時日안에根治식혀줍니다
三、고로이도銀特有의침투력으로 속속드리뿌리박힌淋菌을 모다죽이나니 尿道側管 膀胱 副睾丸 攝護腺 자궁내막 란소 란팔관등의병중을 곱낫게만드는약임으로 남녀급만성림질환자의一大福音의靈藥입니다

本劑는 全道有名한藥房에서 판매합니다
만일 賣切된때에는 직접 本舖로 주문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 곱송약하여드립니다
어떤분께서 꼭 필요한「淋疾과그療法」이란冊을 통지하시는대로 無代로進呈합니다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四十五錢

바로ー루 バロール

千餘鑛夫使用하는 笏洞鑛山에서罷業
勞働賃金引上要求拒絶原因으로
警察에서主謀者를引致

【遂安】금월초순경에 수안홀동광산(遂安笏洞鑛山)에서는 광부들의 동맹파업사건이 이러낫다 그내용을듯건대 광부측에서 회사에 여러번 말하기를 현금각종물가는 고등하야 생활할수업스니 임금(賃金)을올려달라고하얏스나 회사측에서는 듯지안코 기다리라고하므로 지난 친밀경에는 광부측에서 또다시 몰려가서 말한즉 채광계주임(採鑛係主任)은 도리어 모욕하매 광부측에서 크게분개하야 일시에 동맹파업을 시작하엿는데 경찰당국에서는 그보고를접하고 만일을념려하야 경관들이 즉시 현장에 출장하야 회사에 말하야 임금(賃金)의 이부를 올려주게하고 광부들에게 대하야는 동맹파업을말고 온당한태도로 나가라고 진무하엿스나 광부측에서는 듯지안으므로 그중 주모자라고할만한 여덜명을 경찰서로 인치취조중이라고하다 이광산은 조선에서도 천여명에 달하므로 그추이는 크게주목된다고한다

舍人에栗大의雨雹

【舍人】지난십사일오전십시반경부터 평남, 순천군, 사인장에는 돌연히 밤만한것이나 크게생긴우박이 와이러는것이나 쏘다저일시는 그야말로 겨울아닌 은세계를 이루엇다는데 계속하야 쏘다진 폭우로써 뭐경은 녹아버리고 말엇다 그리고 피해는 채소 과물등에속 손해가잇슬뿐이며 마침부근 일대에 만 정히 매칠지경이라고한다

釜山談合事件餘燼
第五次檢擧開始?
이번은道廳關係摘發

【釜山支局發】부산토목담합사건은 그후연속적으로 부산서상호(三好)사법주임의손으로 관게자에 대하여 취조를진행하고잇는바 마찬내제오차의 검거를개시하야 이번에는 경남도청관계의 공사에대하야 철저히 적발하리란다는데 사건의 진전에따라 의외의 관게자에도 불똥이뛰게되리라하야 관게방면의 물론이자 자하다고한다

水利組合理事會의 水組協會可否討議

【平南支局發】평남도내 수리조합리사회(水組理事會)는 십오일 오전 아홉시부터 평남도청회의실(道廳會議室)에서 개최되엇다 협의사항의주된것은 군소수리조합을 기술적으로 지도, 장려하여 산미증식의 만전을기하고저 전번총독부에서 개최되엿든 농무과장회의(農務課長會議)에서 수리조합협회(水組協會)를 조직한후 본부는경성에두고 지부(支部)는 각도부에설치하여 통제적 지도를하기로한다는 협의가 잇섯스므로 여기에대한 평남도의 태도를 결정하려는것이다 그런데 이공작을수행하려면 지주(地主)에게서 수리조합의 세금(稅金)을 징수하는 이외에 다시 일단보(一段步)에 일전오리(一錢五厘)의 비용부담을 하게되는것이므로 그결과는주목되고잇다

安東驛前派出所에 巡査二名

【安東驛】지원병제도실시를 압두고 표되자 조선내지의 청년들이 만주에 거주하는 지원자가 속출하여 한때 원서제출이잇섯는데 지난십이일까지 안동경찰서 병사계(兵事係)에 제출된 지원자는 다음의 두사람이엿다한다

安東市三番通四丁目 ○○○(二一)
○○○ 劉士俠(二一)

觀光祭를廢止 報國週間實施

【平南支社發】평양관광협회에서는 해마다 봄철 관광제(觀光祭)를 금년에는 중지하고 이대신에 일주간을 보국주간으로 정하고 실시하여 다음과가튼 행사를 하기로되엿다

一、聖戰祝賀의 ○○○○
二、觀光事業의 ……
三、……
四、小學校兒童의 勤勞奉仕
五、라디오放送 ……

海州學校組合會

【海州】해주학교조합(海州學校組合)에서는 십일일오후 조합사무소에서 조합회를 개최하고 다음의안을 부의하엿다한다

◇議第一號 昭和十三年度海州學校組合歲入出追加更正豫算의件
◇議第二號 海州上町公立尋常高等小學校增築의件 (?)

無盡藏의石炭도 畵中餠의奇現象
大量移出의影響으로
工都平壤에서燃料飢饉에困境

【平南支社發】지하에 수억톤의 매장량을가지어(埋藏量) 아니라 린접 지대에 수백의 탄광을가지고잇는 탄도(炭都)평양에서는 탄업자가 내지연장주의로 매진하기때문에 여지업는 무연탄내지면의 부족을 늦기어 어졀줄을 모를 곤경에빠저 이기현상(奇現象)을 타개코저 평남천쪽에서 맹운동을 일으키게되엿다

평남무연탄게단체에서는 일본내지에 지금까지 매년오십톤을 이출하든것을 금년부터는시국관게로 불인탄(佛印炭)지나탄(支那炭)의수입곤난으로 석탄의부족을 느끼는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산무연탄을 대량이출하이키엇다

이때문에 석탄, 무연탄을 원동력으로 필요하는 각공장업자 에서는 석탄을 주위에 엇지 못하고잇스며 면에서는 동력을 가지고잇스면서도 어둡수업는 실로기이한 장면을 노출하고잇는 중이다 가(價)가 고가(高價)를 지불치안으면 아니된다는 형편이며 하여 일반도 가정에서는 큰지장을 일으키게되어 평양상공회의소에 진정하엿다 그리 하여 상공회의소는 그대책을 강구하는중이다 그리고 평양에서는 평양부에서도 요구가 가정용수요를 철저히 하도록 업자에게 지원민(地元民)에게 원료를 대표하여 탄광업자에게 요구하기로되엿다

春川農校新築費로 廿五萬圓또惠擲
小林氏巨彈을連射!

【春川】산간지강원도에도 회원(懷圓)에빗나는 명년부터 펴이잇다 소림광업(小林鑛業)사 소림백년광산(小林百年鑛山)을 경영하는 경성소림채남(小林采男)씨는 조선광업계의 거성으로 단연두각을 나타내이고 잇스며금번산회만원을 던저 춘천농업학교(春川農學校)를 설립하게되얏다함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이에이 듯봉돌아간 선전이 강다고하다 원도에서 광산(鑛山)을 경영하게되것이 계기로 지금의 기초를 잡게된것이니 이에감사보은한다는 당연이행바라하야 요지음 춘천공립농업학교(春川公立農業學校)의 신축비(新築費)로 이십오만원을 기부하게되어 빈약한도비(道費)로 신축하려고 애를쓰든이만치 소림씨(小林氏)의 장거에는 도민전체가 만강의경의를 표한다고하다

"道民을代表致謝" 金江原道知事談

금번소림채남(小林采男)씨가 이십오만원을 기부한데대하여강원도지사 김시권(金時權)씨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소림(小林)씨는 본도의 농업에 아직미개한점과 기술자가부족한점을 극히유감으로 생각하여 사계의 지도자가필요함을느끼고 이가티 거대한금액을희사한것이라고한다 금번 춘농(春農)은 수의축산과(獸醫畜産課)를 신설하는동시에 이제 신축하는것이엿스는데 의외에 희망자들이 우두산(牛頭山)하에 착오로 와전한농교(農校)가 봉원에 나타나게될것이다 도민(道民)을 대표하여 감사하는바이다 운운

新京測量學院開校

【新京】신경측량학원(新京測量學院)에서는 그간모든준비가 완성되여 지난십일 오전십시부터 동교대강당에서 관민유지다수 참석하에 개원식 신입생 삼십여명의 출석으로 개교식을 거행하얏다는데 동교교장 고무림(高茂林)씨는 출석지 못하고 동부교장 김용욱(金龍郁)씨와 개교사와 의미심장한 축사가 잇슨후 축전등의 봉독이 잇슨후 동산이시에 폐회하엿다

渡滿하는靑年을 移動警察引致

【海州】소녀세명을 데리고 만주로 건너가는 괴청년이 이동경찰에걸렷다 - 재령군 상성면 청천리(載寧郡上聖面淸川里)출생으로서 만주국 모처에서 정미업(精米業)을한다는 한내천(韓來泉)(三○)은 세명의 소녀를 데리고 만주로가든중 평북이동경찰에게걸려 경찰에서 방금신의주서에 인치하고취조중인데 그는 인솔한 소녀세사람과의 관게에 대하여 그중 이동생인 이봉원신대리 (鳳山郡沙里院新大里) 임만복(林萬福)(十七)을 전재사배원에 기한은 이년간 이십원에 계약하고 우화리(雨花里) 리명수(李明洙)의 동재당 리춘도(李春桃)(十七)는 전재금 삼백원에 계약하고 지금 그곳으로 가든길이라하야 경찰에서는 인신매매의 혐의로 취조하는중이다 각각 창기 계약을하고 도만하든 것이라고 자백하엿다 그리하여 경찰에서는 전기한녀성의 조선내지의 부모에게 조회하여 왓스며 구속 기보안과 에서는 곳조사에착수하엿다

失職中에精神異狀 食刀로三母女刺殺
兄家에寄食하든病든鑛夫
麗水邑美坪里의慘事

【全南支社發】전남 보성(寶城) 처자들과가티 생활할수업스므로 수업스므로 여수읍 미평리(麗水邑美坪里)자는 안용구(安龍九)의 형 안주봉(安周奉)(?)의 집에가서 얻어먹고잇든바 공교롭게 병이들어 얼마전부터 정신이상이 생기여 지난십사일 오후 세시경 식도로 형수 김봉순(金鳳順)과 그딸 안순례(安順禮)(十)등 세모녀를 찔러 참혹히 살해하야 유혈이 낭자하엿다 경찰에서는 급보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야 범인을 체포하고 취조중이라 한다

富寧水電工事場에 一百五十名移送
光州에서北朝鮮으로

【全南支社發】전남도내 이재민을 울리기위하야 봄에는 광주(光州)로 주휴하엿는데 광주역을 떠나 함북 부령수력(咸北富寧水力電氣工事場)에 일백오십명을 이민키로하야 오전구시삼십분발 열차로 출발하엿다

乘合自動車 幼兒를轢殺

【大田】본적을 충남 ……

西海小學學年延長

【海州】평남동해주군 서해소학교(平南東西海小學校)는 소화사년에 설치된 사년제의소학교로서 이래더년간 현이상이든 학년연장을기삼어 방면인이 동분서주하여이온동 거년부터 기성회를조직하여 도에 청원하엿고 복조선당국에서도 기부하엿거니와 지난일부터 도내각국의 천차인가를 어더……

當局者現地急行 救濟策講究
鳳山大火事件後聞

【海州】기보=이십이호 사십오명의 전소와 백여명의 리재(罹災)자를내인 대화사건은 기보한바와가거니와 지난칠일오후네시 봉산군기천면 정사리(鳳山郡岐川面井沙里)에 일어난 대화사건 은 기보한바 지난 삼일오후네시 봉산군서종면 신흥원(新興元)방에서 불이 난 이래 리재민들은 삼일동안에 거처를 모르고 소방조원의 활동으로 전소하고 그 날오후여섯시에 각가스로진화되엿다

求職渡滿靑年 奉天市에雲集

【奉天】조선내지(朝鮮內地)농촌의청소년이 지러가는봉천(奉天)에는 동서로 치워 하여살 작가리버리고 농촌을 헌신얌이 벗겨다고 피땀의결정인 돈 얼마를 근근히작만하야 가지고 조선내지의도지로 구직을하라는 기대가 여의치안케되면 끄트로만주로향봉천(奉天)에는 하급노동자로 들어서 요지음 봉천(奉天)에는 하급노동자층의 식이물을애쓰는데 간루에는 의구직군 이 날로늘어가 일정한 직업도 못엇고잇다 그러데 파면 그들의 활장 파가튼취직통문가만흔데 철곡 은 이차되어이여에서 타관자가되며 그런도를 망치게되는 사람도 잇다한다

阿片中毒男女 海州署서引致

【海州】해주서(海州署)보안계에서는 지난십사일 해주군동운면 삼천리(海州郡東雲面三川里)농업 김경서(金京瑞)(?)와 그의내연의처이도원(李道元)해주읍남본정(海州邑南本町)허두철(許斗哲)(?)등세명은 비밀리 몰핀주사를하다가 해주서원에게 발각되여 검거를 보게되엿다한다

京都府下에大火
朝鮮人部落全燒
百餘災民街頭에彷徨

【大阪】지난십사일오후삼시사십분경 경도부하선정군오개장조차 사곡(京都府下船井郡吾雲村字國谷)에잇는 조선사람들이 모여 살고잇는부락에서 불이나서 그부락십칠호를 전소하고 동부근 산림(山林)에까지 옴마가게되여 그냥오후세시까지도 동등고지못하엿고한다 속을 항하면 백여명이 되는데 불의의 화재를 만난그들은 가구전부를 잃어버리고 갈데업시 가두에서 방황하고 잇는처참한 광경을 보이고잇다 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87】 洪碧初 作 金熊超 畵

소굴 (五十五)

꺽정이가 사다리를 들고 천변까지 뛰자나와서 오든 망제 꼬뒤로 아주 넘어가니 도꼼을 이리저리 바라보니 포교들의 도망하는놈이 우줄거리는 하는편 꺽정은 옷고 사다리를 개천에 내던젓다 개천속 건너편에 한도 하나가 떠러저잇서서 황천왕동이가 집어오라고 뛰어나려가는것을 외상마진차가 쪽엇는가 보러가는줄로 꺽정이는 생각하고

「그깐놈 죽엇거나 살엇거나 도려다봐 무어하느냐 고만두구 올려오너라」

하고 말을 일렀다

「아니요 칼집으러 나려왓세요」

「그게 그놈의 칼인가부다 이왕 칼을 집을바엔 그놈의 몸에 칼집이잇나 봐라」

황천왕동이가 한도를 집어서 손에든뒤에 사지를빼치고잇는부장에게 와서 허리에찬 환도집을 떼어서 부장의 엇개빼드에

구멍으로 나가보지요」

「동굴안에잇는 아이들은 엇더커구」

「그애들은 내중에 소굴동으면 저이대루 오겟지요」

「오늘밤 동굴안에 가서자구 내일 아주 다 떠러가는게 조치안흘까」

「내일은 설만에서 기찰(譏察) 심하게하겟지요」

「그두 그래 그럼 지밥먹구 시밥에 오간수루 나가세」

꺽정이와 리봉학이가 수작하는동안에 신불동이와 박유복이는 세사람의 옷갓을 논하놋고 나와서 한여페서 기다리고잇섯다 집에서 의관들을 차리는동에

「대체 우리가 소흥이집에 와잇슨걸 포청놈들이 어떠케알엇슬까」

꺽정이가 말하야

「어떤놈이밀고(密告)한게지요」

리봉학이가 대답하는데 황천왕동이가 여며서

얼골을 비키고할 정신까지잇스면서 자기선것이 다리와천변의 어름인것은 생각들못하고 그대로 여묘로 비켜나다가 한거이 넘는 개천속에 모로 나가떠러지는데 웅이에 마른도 머리를 부듸치고 발로 기절하야 다죽은 송장가티 되어잇섯다

「이 죽은놈의에 서넌 다리미테 떠러잇는데 엇더케하까요 마저다 죽여버리까요」

황천왕동이가 아래서 물어서 꺽정이는 나려다보며

「그깐놈 그대루 내버려두구 얼른 올라오너라」

하고 대답하얏다 황천왕동이가 천변에 올라와서

「이길 형님 드리까요」

하고 집에 저진 환도를 아프로 내미니 꺽정이가 바다서 불을 향하야 달에 비치어 보며

「그대루 쓸만한가부다」

말하고 집에 꼬자서 허리에 찰때에 리봉학이가

「담고한것이 놈인지 년인지 어떠케 아시우」

하고 말을 달엇다

「년이 란니 자네말에 의심나는 기점이 누군가」

「나는 첫재 소흥이가 의심나는걸이요」

「나두 처음엔 그런의심이 들엇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치안흔상시푼데」

「소흥이가 우리버리 더불라는 걸 보시구 그러치안흔줄을 생각하섯나요 거짓울기두 잘하구 거짓웃기두 잘하는 기생년이 거짓놀리는시흉을 못낼리가요」

「아니야 만일 소흥이가 미리 밀고해두엇스면 형님 기시구 안기실걸 알려왓슬리가 잇나 나는 의원이 나제왓든 놈가에게루 가네」

「노밤이가 미덥지못한놈이지만 그래두 소흥이에게 대면되려 미더운놈이요」

황천왕동이와 리봉학이가 각기자기소견 말하는것을 꺽정이는 잠자코 듯다가

「소흥이두 아니구 노밤이두 아닐게다 나중에 알어보면 엇던놈의 한짓인지 알수잇겟지 고만 가자」

하고 말하엿다 꺽정이가 말 가진 리봉학이를 때아며 세우고 아무것도 안가진 황천왕동이와 신불동이와 박유복이를 동간에 세우고 자기는 맨뒤에서서 수표교천변으로 나려오는동에

「자네들 기다리세요」

소흥이가 뒤에서 소리첫다

仁川支局電話 二九○番

若草製粉都賣
釜山府瀛州町 丸星商會
第一工場 釜山府瀛州町二五番地
第二工場 釜山府大新町二百番地
電話三四九番・振替釜山二九二八番

指導事業
今般本事業部에서 地方官民農村의 便宜를圖하기爲하야 各種必需商品 一切斡旋事業을着手하고意志堅實 한適任者를人選中이온바有利事業 은相互指導하며適任者는任意의區 域과僅少한資金과保證人이必要하 照會次第即回答返信四錢切手添送
京城府敦義町八○番地 朝鮮警察新聞社事業部
振替口座京城二八四四五番

朝報案內

高給社員招聘
平南北黃海道中心으로地方에在有 給社員及出張所長을招聘하오니希望者는 履歷添付照會
平壤府幸町四六
大正生命保險株式會社支部
日本教育生命保險株式會社支部
電一三○二番

社員招聘
年齡二十五歲以上經驗의有無 に不拘努力奮鬪の士を望む 希望者履歷書送れ面會日通知 鮮內各地에在함
京城府長谷川町一一二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各眼科病院處方
眼鏡責任調製
京城府民病院眼科 江頭眼科醫院
京城醫專病院眼科 金井眼科醫院
京城赤十字病院眼科 荒川眼科醫院
龍山鐵道病院眼科 仁川岩永醫院
龍山陸軍病院
全鮮各道私立病院眼科御指定
京城帝國大學御用
大學堂眼鏡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③二三七五 振京一二一二九
◇眼鏡・望眼鏡カタログ送呈 (要三錢)
平壤府本町六番地 大學堂眼鏡店

菊正宗
日本一の代表酒
日本一の釀造高
年釀造一二・○○○石
名實共に日本一

百貨撩乱의和信
衣裳次賣出 (二階 布木部)
節花
四月十五日부터同末日까지
百花爛漫의꼿時節! 衣裳도準備는和信에서……
◇特價品
本絹古紗本、珍珠紗、本絹仁 上衣次一・四○을一・八○으로
◇新流行品
秀花조셋트衣次 一○・五○ 一二・二五
레오난드벨벳트衣次 一二・○○ 一三・五○
新着와이샤쓰賣出 (一階)
벨벳트……二・二○ 二・五○
포푸린……一・七○ 四・○○
新着네타이賣出 (一階)
二・○○ 二・二○ …… 二・六○
純毛合쓰특賣 (四階 特賣場)
特價……一・八○
花見辨當賣出 (地階)
○・六○ ○・八○
花見酒特賣 (地下食料品部)
花正宗一升入 一・一○
遊戲用 (地階)
水筒、辨當箱魔法瓶賣出
新製후꾸사・메宣傳賣出 新流行의婦人用핸드빽 (一階)
華麗한結婚式 式場裝飾에는 和信帽式部로 (三階)
兒童乘物賣出 於三階玩具部
自動車 一二・五○ 一三・七○
自轉車 一九・五○ 二三・八○
三輪車 三・九○ 五・三○
乳母車 一四・五○ 二六・五○
春節兒童服特賣 於四階婦人子供服部
洋品部分코저三四階安의大賣出
朝鮮食器賣出 於地下 砂器部
金屬사발・대접・熱物 보시기其他各種
新着찻트그라스賣出 於地下 砂器部
花見쇼ー트・파라솔
登山・하이킹用品賣出 (四階 運動具部)
登山袋、帽子、스틱기、靴、登山刀、登山服 登山로ー프其他
買上客에하이킹코ー스팜후렛트를 외진錢進呈
小供登山袋 (四階 雜貨部) ○、三五ー一、八○
◇쇼ーㄹ 特價賣出 (一階) 一、○○ 一、五○ 一、三○ 三、○○ 三、○○ 三、五○
◇파라솔 (一階) 一、五○부터
◇日傘 (一階) ○、五○부터
特別催物
十六日부터六日間 交通安全展覽會 (七階 가데리ー)
二十二日부터七日間 綜合手藝講習會 (四階 別室)
三十日부터五日間 在東京美術學生綜合展 (七階)
公休日 四月十八日(月)
和信

換節期는危險하니 アリヂン을常備하라!
全鮮五百餘病醫院에서 絶讚을밧고잇는 アリヂン을常服하야 萬病을未然에防止하자
藥學界巨頭藥學博士加來天民先生의創製인 アリヂン으로 肺病을未然에防止하자!
アリヂン은藥學博士加來天民先生이十數年間 苦心硏究한結果創製한 것으로呼吸器病特히肺 結核의治療及豫防에가 장有效하며殺菌力이甚 大하야腸內에모든病菌 을滅菌시키는作用이有 합니다
アリヂン의偉力 虎列剌菌도三○分 동안에全滅된다
百千萬人이期待하든 斯界의巨頭인 加來天民博士의創製 를밋으라
適應症 A號 肺結核・慢性胃腸病・消化不良・……・腸內異狀醱酵・十二指腸虫等의腸內寄生虫驅除 B號 各種傳染性胃腸疾患(赤痢虎列剌・腸窒扶斯類似病等)
包裝
君人一의界學藥 博士加來天民先生創製
Allysin アリヂン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發賣元 天一藥房洋藥部
京城府禮智町

●感嘆! 感嘆! 정말頭痛에씩조흔 ノーシン이다●

정말戰時經濟

高橋龜吉氏講演要旨

高橋經濟硏究所長 高橋龜吉氏는 十四日入京하야 京城商工會議所主催로 同會議所에서「長期戰下의財政經濟」라는 題로 午後五時부터 七時까지 講演會를 열엇는데 그要旨는 大槪如左하다。

×

事變은 長期戰化하얏는데 정말戰時經濟體制는 이로부터이다 日本의 經濟力이 果然長期戰에 견디어내겟는가에 對하야서는 外國에서는 대단히 悲觀的見解를 가지고 잇슬뿐아니라 國內에서는 確信을가지지안코 疑心을갓는 사람이업지안타 어떤點에 잇서 悲觀하느냐하면

一、平時에는 公債消化力이十億乃至 十五億이엇는데 今年은 五十五億乃至 六十億을 消化하여야할터인데 그것이 可能할가

二、[illegible]

×

그러나 이것은 [illegible] 平時와 戰時를 區分치못한때문이니

一、公債消化力에 잇서서는 平時는 民間의 消費를 制限치 안는다는 前提下에서 十億乃至十五億의 消化力밧게 안된것이나 그前提를 變更하면 四十億의 [illegible] 民間消費節約을 [illegible]수 잇다 國民經濟力 國民生活力이 견디어갈수잇는 程度 節約하는 限界가 即戰時公債消化力의 限度가될것이다

二、지금까지는 日本이 外國으로부터 輸入할수잇는 能力이 大槪二十億이엇다 [illegible] 보아서의 輸入力 그中에 五億이 [illegible] 二十五億이 [illegible] 지금은 [illegible] 優先的으로 十五億이나 輸入하여야 하는데 [illegible] 民間[illegible] 減縮시키면 [illegible] 化시키지안코 [illegible] 잇을것이다。

×

萬若 日本의 [illegible] 支那事變만에 原因된것이아니면 [illegible] 現象으로서 長期戰下에잇서서는 前途悲觀不許이다 그러나 事實은 支那事變만에 原因된것이아니다

元來 困窮에 두가지가잇스니 하나는 事實上으로 內容이 [illegible] 해서 困難을 當하는 境遇가 잇고 또하나는 잇는돈을 모두 事業에 投資하얏기때문에 그事業이 利를 남기게되는동안 即操業開始前에 困難을 當하는境遇

[illegible] 日本의 現下實情은 [illegible] 生産力 [illegible] 日本의 [illegible] 그營業이다 [illegible] 國際收支가 [illegible] 다시말하면 [illegible] 生産力擴充으로 全體資金의 四分三을 쓰고잇는것이 事實이다 昨年事變費二十五億中에 十五億 밧게 쓰지안은것을보면 [illegible] 다 지금이 가장困難한때이고 이 고비만넘기면 生産力이 느러가서 걱정이 [illegible]것이다 [illegible] 産力이생길동안을 견디어가야하겟는데 輸入制限禁止는 더욱甚해갈것을 覺悟해야한다 얼마나 견디어내느냐가 그限度가 問題이다。

×

外國에서는 食料品을 大部分 輸入하는關係로 이것의 輸入을 制限하면 問題가 크고 國民生活에 破綻을 이르키는터이나 日本은 多幸히食料品은 自給自足하는터이니 그리問題가안되고 輸入치안허도 견딜수잇는 棉花、羊毛、[illegible]

[illegible]

變態的金融緩慢

不動産金融閉塞

銀行은放資難에허덕인다！

資金調整의影響深刻

臨時資金 調整法實施에依한影響은 漸次 最近朝鮮의 金融界에도 各種의 現象으로 늘어나고잇는데 가장注目할 큰影響으로는 調整法에 基한 銀行의放資制約에依한 金融의 緩漫化이다 即 資金調整法에 依한不動産金融의 閉塞은 從來朝鮮內銀行의 絶好한 放資物件이든것을 빼앗은것이되고 또 不動産을擔保로하는 普通商業金融도 相當한 制約을밧지안흘수업다 또土木資金其他 平和工業의 擴張休止로 資金需要의 減少는 自然銀行의 所持資金을 潤澤케하야 金融緩慢의 傾向을 顯著하고잇다 또一面 時局의 惡影響을받는 諸事業會社의 利益金은 調整法에 依하야 增配되지못하고 銀行預金의 [illegible] 增加되고잇다 一方 豐作米高에依한 農村의 活況으로 銀行預金은益々 增加하는 趨勢를 뵈고잇다 이리하야 資金調整法은 因이되고 果가되여 金融緩慢의 度를 깁게하고잇스나 銀行의 經營의 角度로보면 一種의 放資難이라고도 解釋되여 深刻한苦惱를招來하고잇다

鮮銀券收縮

鮮銀券發行高는 四月에들어선以來 急速한 收縮步調가되어 四月에의 繰越二億五千八百十四萬七千圓은 十日現在 二億五千三百十九萬圓이되고 다시 十四日繰越에는 二億五千百五十五萬圓을 示하야 月初以來 六百五十餘萬圓을 著減하엿다 이 原因으로는

一、北支流通鮮銀券의聯銀券에의 代位

一、朝鮮內의 金融緩漫化에伴하는 發行收縮

의 두가지라고보이는데 이中에 特히 北支의 聯銀券代位가 큰 原因으로보이고잇서서 聯銀의順調로운進展으로 現在約六千萬圓으로 推定되고잇는 北支의 鮮銀券도 今後一個年을 나서지안허서 거의聯銀券으로 바뀌일것이라고보여 이는 當然 漸進的으로 鮮銀券의 發行高에 表現될것으로 觀測된다

補償不要求 鮮銀券撤收

北支流通鮮銀券의 撤收에當해서는 一部에滿洲와 同樣으로補償問題도 傳하고잇든바 中國聯銀構成의 方針이 滿洲와 趣旨를 달리하는 進出事情等으로比較問題는 此際에 全然顧慮치안코 鮮銀은 中國聯銀의 健全한 進展에 全的協力을하기로 內定한모양이다 即實際問題로서는

一、鮮銀券의 北支進出은 滿洲의 그것이 營營苦心의 結晶이엇는것에 比較하면 趣旨를 달리하야 急速히增大된것

一、滿洲에서는 鮮銀券뿐아니라 正金券도撤收하얏스나 北支는鮮銀券하나뿐이라는 事情이 잇다 그러나 北支는 聯銀確立에協力하야 營業을擴充할터이라 實的으로 影響이업는것等의 事情이잇는데다가 中國聯銀의 助長은 國策的協力을 必要로함에 鮮銀은 大乘的 態度를 示케

銀行大會開催期

全朝鮮銀行大會는 昨年의 決議에 基하야 今秋淸津에서 開催할 豫定이든바 여러가지關係로 어쩌되려니와五、六月頃 同地에서 開催키로決定하엿다

商銀順川支店開業

朝鮮商業銀行의 順川支店은 今十五日開業、朴頭取는 同地에出張開店披露를 行하엿다 初代支店長은 趙鐵九氏가 任命되엇다

煉炭引上

朝鮮煉炭業者側은 今番價格을引上하게되엇는데 右引上에 關해서 總督府에서는 아래와가튼當局談을 發表하엿다

無煙炭은 前日移出向最低二圓五十錢 朝鮮內 一圓五十錢程度의 引上을 不得已하게되엿스므로 어제도 煉炭三圓八十錢의 引上을 承認하게된것이다 煉炭은 其主要原料인「[illegible]」價格騰貴되엿슬뿐아니라 其品不足을 免하는狀態에잇고 配合炭의 引上亦是 顯著하야引上을 要請하고 엿섯는데 需要最盛季에잇서서의 引上은 [illegible]치안코 또本督府에對한 引上承認을 다른一般煉炭引上을 誘致하는結果가되므로 承認치안코今日에이르럿다 그러나 最近朝鮮內煉炭業者協議의結果 引上承認을提議하야 愼重檢討한結果 生産費昻騰의範圍內의 引上만은不得已한것이라고 認定하고 承認한바이다 或이程度의引上으로서는 原料及生産費等의昻騰을 補償함에 不過한다 煉炭業者에

急激한需要增加에伴하야 市況의 好調、物價勞賃의騰貴等에依하야 炭價는昨年來 急騰하야 昨年四月에 比較하면 京城의市價는 內地炭은 八圓乃至八圓五十錢 滿洲炭은 約六圓朝鮮有煙炭은三圓八十錢乃至五圓이 昻騰되고잇다 朝鮮에잇서서의 炭價의 昻騰은 特히大衆生活에 影響하는바가적지안흐므로써 總督府에서는無煙炭田의 合理的開發의方策으로서 朝鮮無煙炭會社를 創立하고 平南無煙炭田의 開發을 擔當시키고 다시 前年 煉炭工場을 合同하야 朝鮮煉炭會社를 創立하고 主로 家庭燃料供給의 安全을圖하며 兼하야 炭價規定의便益을 圖謀한것이다 兩社가 恒常 總督府의 方針을 體得하야 아이目的을 爲하야努力을繼續하고잇는것이나 急激한 市場의變化에 伴하야 生産費는顯著히昻

六百三十萬本苗木을購入

林業開發植林에着手

林業開發에서는 植林計畫遂行에關한 苗木入手를 急히 行하고잇든바 朝鮮山林會의 斡旋으로 京畿、忠南北、慶南北、咸北各地로부터 合計六百三十萬本을購入하얏다 이는 十三年度植栽用四百八十萬本 苗圃用百五十萬本으로品種別로보면 落葉松四百七十三萬本 紅松百二十五萬本 海松三十二萬本이다

尙同社에서는 慶北榮州及咸南 德源에 苗圃를新設하고 右自給을 期하기로되엇다

五分配可決

朝鮮林業開發에서는 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銀行集會所에서 第一回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處女配當五分을 附議可決하엿다

家畜共濟制確立

牛增殖計畫에呼應

朝鮮의 家畜保險은 畜牛共濟라 名稱下에從來郡道農會가 主體가되어 자못消極的으로 行하고잇는데 이制度의 缺陷으로는

一、郡道가 主體가되어잇는것道가再共濟(再保險)를하고잇는것等 區區하게 分立되어잇는것

二、任意加入도잇고 强制加入도잇는것

三、共濟金의 交付額이區區한것

等이 指摘되어 何等統制的으로 行하여잇지안엇는데總督府의十個年 二百五十萬頭 畜牛增殖計畫이새로 今年度부터 實行에옮기게됨에當하야 現在와가튼 共濟制度로서는 所期의目的을 達함수업는實情에鑑하야 總督府는今年度부터 右共濟制度를 統制强化하기로되어 이에 要할 補助豫算十一萬九千圓이 成立되어서

十三年度부터朝鮮農會를 統制主體로 實施하기로되엇다 그內容은大體如左하다

一、郡農會를 主로 當케할것

二、朝鮮農會는 右十一萬九千圓의補助로再共濟(再保險)를할것

三、六個月以上의 畜牛에 對해서는 全部共濟에 加入시킬것

四、共濟加入額은 一頭年三十五錢으로하고 朝鮮農會는그半額을再共濟할것

五、共濟交付額은

▲六個月以上十八圓 ▲二歲以上三十五圓 ▲五歲以上五十六圓

長期戰下貯蓄獎勵

돈節約보다物節約 ❶

一、近代戰爭과戰費

近代戰爭의 遂行에는 莫大한戰費를 必要로한다 近代戰爭은世界大戰으로써 그典型을 삼는데 戰爭에 如何히 莫大한戰費를 必要로하는가도 世界大戰이證明하고잇다。이戰爭에 參加한 各國은 國內의 人的及物的資源의太半을 戰爭에 投棄하엿다。世界大戰의 各主要交戰國은 米國을 除하고는 모도가 國富의四五割을 戰費로읏지 國民所得의 七割二分乃至 九割五分까지를 平均一個年의 戰費로서 消費하얏다。我國의國富는 昭和五年의 內閣統計局調査에 依하면 千百一億八千八百萬圓을 示하고

一個年의 國民所得은 昭和十一年에잇서서 百十二億四千七百萬圓인데 勿論 今日은 그것보다 增加하고잇다 가령國民所得을 百五十億圓이라고하면 今年度豫算의 直接軍事費만으로도 四十八億餘萬圓이므로 約三割二分에當한다 그外에生産力擴充이라는 要素도 多分히 考慮치안흐면 아니된다。

二、戰費와貯蓄獎勵

이巨大한戰費를 어떠케調達하는가 其手段方法은 如何든 結局戰費의源泉은 國家及國民의財産及所得에잇스므로 政府는戰爭遂行을爲하야 莫大한軍事費를 撒布하는것이므로 그만치 國民所得은 增加하는것이 國民所得의增加部分이 國民貯蓄의增加로 나타나지안흐면 臨時的 國民所得은 消費의 增加가되여 物資의 需要의 激增을 招來하고 物資의欠乏 物價의騰貴를 惹起하는 結果 惡性「인플레」의端緖가될것이다。

事變以來今日까지 豫定하고잇는것만도 約九十億圓의 公債를 發行하게되엿스므로 政府는 豫算七十萬圓을 計上하야 드디어 貯蓄獎勵의 國民運動에 進出하도록 하게되여 從來의選擇的消費節約을 變更하야 國民所得의 增加部分에 對하야 一般的消費節約을 宣傳하기시작하엿다。政府는 이運動을 開始함에 잇서 貯蓄獎勵中央委員會를 設置하고 協議를 거듭하고잇는데 不遠大藏省에 貯蓄獎勵局을 設置하고 國民精神總動員中央聯盟과의 聯絡下에 貯蓄獎勵의 國民運動을 이르키게된것이다

그리고 國民精神總動員의 運動의 實行的인 外廓機關이 될것가튼데 여기까지의 國民精神總動員의 業績을 回顧하면 貯蓄獎勵運動과가튼 物的方面의 運動의 中心機關이 될에는 根本的改造를 必要로하는것은 一般이 아는바이다 그러나 結局어方面의 經驗者를 中央機關에 加入시키는程度에 그칠것이다。

三、今番貯蓄獎勵의意義

今番의 貯蓄獎勵運動의 意義는 이運動에 參加하는 者는 勿論 時局에 直面하는 國民이 모두 理解하여야할 緊要事이나 今番은 漢口陷落의 金解禁前後의 緊縮政策과는 顯著히 性質을 달리한다 當時에잇서서는 『돈이업스면 로』 動員貯蓄을 勸한것으로 어것은 我財界를 最後로 不景氣에 陷入케하야 一般國民에게 조치못한 印象을 주엇섯다 當時는 國民이 돈이업서스므로 勸業貯蓄도 今日로보면 消極的意義이엇다 今日에도 今番은 不當하다고 民이 [illegible] 라고해도 今日로보면 消極的意義 政府가 今後一年間에 五十億圓以上의돈을 撒布하는것이므로 所得이 增加한 國民의生活 態度如何는 政府가 念慮하는바로 所以이다。

漢口內閣時代의 動儉獎勵運動에 失敗한 根本原因은 當時生産過剩으로 生産力에 相當한餘裕가 잇섯음에도 不拘하고 消費節約을 獎勵하엿기때문에 어結果 財界를 一層深刻한不況으로 陷入시켯다 그러면 現在는生産力의 不足으로 生産擴充에 熱中하고잇는 狀態에잇는 에 [illegible] 生産力擴充에는 膨大한物資의 給與를 要하므로 이方面에 對한 物資의 需給을 圓滑케하는것이 現在의 急務이다 이러때에 當하야 增加한 國民所得이 그대로 消費로向하면 物資의缺乏 物價의 騰貴를 招來하야 生産力擴充에

對한 物資의 需給을 調節할수가업다 今番의 貯蓄獎勵運動은物資의 消費節約을 理解치못하면 어物資에對한 側面을 理解치못하면 어運動이 가진 참意義에到達할수가 업슬것이다

近代戰爭의 財政政策에는 貯蓄獎勵가 附隨物이되여잇다 그것은 巨額의 戰費의 大部分을公債에 依하야 充當할수가 잇는것이나 公私共히 動儉貯蓄하는것은 現在의 財政上問題를 解決키爲하야 必須한것이다。

財政上問題라는것은 一은 公債의消化이고 二는 物資需給의 調整이다 이應하야 一般國民의 動儉貯蓄으로 어떠케 通貨를 吸收하느냐에 잇서 一層 貯蓄과 節約에依하야 民의 貯蓄을 吸收하고 이貯蓄과 公債의 消化를 圖하는 貯蓄과 並行하는 消費節約에 依하야 物資의 浪費를 防止하고 國民의 購買力을 政府에서 回收하야 物價騰貴를 防止하고 國際收支均衡에 努力하야써 物資需給을圓滑케하고 惡性 「인플레」에 對한 經濟에 對하야 不斷히 警戒치안흐면 안되는 것이다。

株式强調

今日의市勢(十五日) 小高下裡

前場反撥

昨日의 鐘紡高로인하야 場面은居然 보엿스나 後場에는다시 低弛揉合이되엇는데 今朝에는京阪高에 不拘코 寄付는 依然化하엿고 그後堅强狀을 持續하엿스나 市勢는 仕手의 形勢觀望으로 다시 保合商狀이된모양이 엇다 鐘紡二百六十九圓을 보고 어서 鐘紡이 二百六十九圓에 小康을 보이기도하엿다가 大體 保合하엿다가 東新百五十六圓 四錢 鐘紡二百六十七圓 四錢反弛大引되다

後場强調

後場은 蔣介石重傷說等을 入하야 寄付는 東新九錢高 鐘紡百六十九錢高 東新百五十八圓 鐘紡二百六十九圓을 보였다

再次形勢觀望

朝鮮後의反撥로 相當한波瀾을 그린後 다시此邊의揉合狀이되는데 市勢의常性으로보아 當然視되는바 [illegible] 調整以上의 反動으로 反撥을 하엿스나 周圍는 아직不透明하야 買進할根據材料가없는 關係로 買方으로서도 積極的으로 賣込하엿다가 反動이나서는 [illegible] 에잇는만치 [illegible] 一步退却하는 階梯에잇느니만치 賣方이모두 再次望을하지안흘수없게되는것이니 此邊의 揉合은不可避나 爲先은玉整理도 一段落된셈이오 賣込玉도相當하다고보며 去般의 低價를 中間底로하야 漸高相場에 利益을 現할것이아닌가하는 商談이多하다

人氣依然賣偏

市勢의 反撥로 大衆이賈로 轉

國債少戾

[東京電話] 同盟) 依然金融緩漫으로 底堅한 推移를 示하고잇스나 今朝는 一般으로 實物薄이어서 甲號五分五厘高 佛貨十錢高 米貨六分半二十錢高가되엇스나 賣買는 몹시한 것이없다 戾價에는 또 買物薄이될것이아니가 보인다

▲甲號四分一〇三、〇〇 ▲二十三年物九九、四五 ▲二十八年物九八、二〇 ▲佛貨四分一〇六、〇 ▲米五分半三六〇

期米 頭重

下洟이나

前場低迷

昨後場의 再瓦落을 重하고 今朝阪地卅四圓六十錢인 九丁反落을 報하자 當市場은 一圓七十五錢인 止同價로 中운 一圓八十五錢인 二石高、先限은 卅二圓十錢인 一丁低落으로 場을 始한後 阪地細刻騰落으로 六十九錢으로부터 六十七錢幅에서 不動하고 十四錢까지 反戾하엿스나 보고 十錢에 低弛止場하엿다

後場底堅

阪地 一丁低에 不拘코 三十二圓十錢으로 前止同價로 始한後 二節十一錢 三四節 十二錢同價로 底堅이엇스나 頗重狀이엇다

마바라總退却

客月末의 下押은 政府米買上의 漏落으로 基因하엿스나 [illegible]

市場六感

株 …昨日의 鐘紡高를 끄트로 今朝에는 다시 揉合商狀 ▲低價도 오래 持續치못하고 反撥後의 高價도 오래持續치 못함이 近間의 行動 ▲그도그러할 弱氣를 먹자니 彪大한 軍需에 依한 好轉와 金融緩漫이 치바치고 ▲强氣를먹자니四圍의 不透明으로 時期가尙早함 ▲東新十圓臺를 限度로하야 본다면 마치 逆張에 適合한市勢 ▲大勢는 依然不良이라고보는 人氣 賣込玉의 整理가 먼저나와야할가? ▲그러므로 一般賣高를 示現後 再押으로 보미安當?

米 …連日下洟이든 當地場面은 依然一變하야 動搖反落의 形勢를 빚어하고잇다 ▲그原因은 農家가 아무리 賣惜하고잇스나 米穀集散地의 在米가 豐富하고 渡米穀過剩의 物價 ▲群衆이 모두 實賣成하는 一方으로 突然 金太郞乘을 中心으로한 有力筋 旣發賣하여지는까닭 ▲그리고 阪地市勢가 再瓦落을 告하자 當地『마바라』側이 投退하는바람에 當地는 又一落 ▲이러면 그 又一落을 可期?

正米事情一考

今朝 仁川正米는 三十一圓五十錢唱으로 此輸入關하다면 十一圓七十五錢과 比較하면 採算이거의 相適하게되며 昨今市中實價의 光景을보면 地方의出廻는 自地의在米가 豐富함에도 依然賣惜함으로 稀少하고 漲散地인 當地正米市場에는 在米가 相當하나 內地의 實注文이 稀少하야 當事者間에 [illegible] 阪地 [illegible]

正米 崩落 實氣萎縮

京城崩落

內在荷로 下支된市勢도 此邊阪地의 換金賣物少數放兒으로實氣보여 正租五毛低弱함게 市中所持側의季節賣分賣物이 相當히 出現하야 地場必需品 除하고는 一般으로 春期때라 市價는 마치내어 二十錢賣叩되엇다 ㊀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 一二、八五

仁川暴落

産地의 出廻가 多少잇서 賣氣가엿보인때에 買方의 唱價는 一段低價이라 低價에는 賣物이 不添하나 一般 人氣는 極度로 惡化하엿스며 積極的으로賣進하는 形勢는 업는데 간지히 精米側의 唱價는 昨日보담 二十錢이엇다 ㊀穀良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二〇 銀坊主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多摩錦三等三一、二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四二一、八五 ㊀一二、七五

釜山下放

東地는 獨步高를 維續하고 잇스나 朝來定期의 軟弱과 市況의 實行不振廉氣을 賣氣硬度로 萎縮되어 市價十錢低로 下放되엇다 ㊀穀良三等三一、九〇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三三、〇三

大邱不動

不實不買로 新味는 업스나 東地有力側의 依然한 突込自戒로 市價不弛 하야 場面은 閑散裡로 不動이엇다 ㊀

群山萎縮

[illegible] 持續하야 [illegible] 場面에는 [illegible] 出廻로 [illegible] 人氣는 [illegible] 東京來 [illegible] 所持米 [illegible] 市價十五錢乃至 二十錢 安하엿다 ㊀銀坊主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 一二、九〇

木浦不變

當上狀保에 不抑 코 [illegible] 前途米價에 對한 人氣는 [illegible] 期待動 [illegible] 가진모양으로 아직 市場은 [illegible] 一等白米 三一、七〇 四等三一、〇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今日財界十五日

◆米	仁川正米 大阪期米	[illegible]
◆株	[illegible]	[illegible]

仁川 金益鎔

銀重 古石 買入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大門通一ノ九五 電本一三八〇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海外經濟

銀行券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況 ◆滿洲特産市況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況 [illegible]

株式 ◆鑑定 代引 日步 ◆朝取主要取組高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株式 期米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重石·水鉛 買入 重石鑛業作業貴金融 明信商會 京城鍾路一丁目四五 電(光)一六九七番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綿絲 ◆大阪綿絲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生絲 ◆橫濱生絲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物價(十五日)

[illegible]